



# 문화매일신문



제1532호

2024/2/8/Thu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 경북도, 대학-교육·연구 공공기관 일체화, 지역혁신 성공모델 만들어

경상북도는 6일 도청 회의실(창신실)에서 안동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재)경북연구원, (재)한국국학진흥원, (재)경상북도바이오산업연구원,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재)경상북도인재개발원, 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 등 교육·연구분야 관계자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경상북도 K-ER 협업센터 협력 방안 실무회의'를 가졌다.

### 경북도립대-안동대 통합대학 전담기관 K-ER 협업센터 신설, 운영

이번 회의는 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K-ER 협업센터는 도가 대학-공공기관 간 협력을 앞장서서 끌어낸 결과로써 통합대학의 교육·연구 분야 공공기관 협업플랫폼 역할을 한다.

또한, 경북도는 교육부 전담 기관인 협업센터를 통해 공공 목적을 수행할 글로벌대학이 지역발전의 허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상북도 K-ER 협업센터의 역할을 중심으로 운영계획을 설명하고, 이어서 참여기관별 협력과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구체적으로는 공동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교육·연구 공공기관 체

제정 정비, 인적·물적 공유플랫폼 마련, 교육·연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기관별 시범사업 선정 및 실행 계획 수립, 협력사업 점검 및 성과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는 K-ER 협업센터를 중심으로 안동대·경북도립대 통합대학이 K-인문학 기반 융합형 인재 양성, 바이오·백신·헬스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을 이끌어가는 지자체-대학-산업체-공공기관 등 지방이 주도하는 지역혁신 선도모델이 되도록 지역의 가용자원을 총 동원할 방침이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7개 경상북도 교육·연구 공공기관과 안동대·경북도립대는 협업센터의 공동 운영 방안과 지역발전과 연계한 공공대학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공유하며, 기관 간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재)경북연구원은 지역혁신 해결을 위해 공공정책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경북형 공공정책대학원', (재)한국국학

진흥원은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인문학 위기에 대비하여 '국학전문대학원'의 구체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바이오·백신 분야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산업화 지원,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도 소속의 인재개발원, 축산기술연구소는 공공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플랫폼 구축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 "우리 도는 새로운 경북 시대를 위해 저출생과 경쟁을 선포하고, 지역과 동반성장을 이룰 대학혁신은 그 위기 극복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가 하나 되어 지역의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K-ER 협업센터를 축으로 공공형 대학이 저출생 극복 등의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전남도, 연안여객선 증편 등 특별 수송대책 추진

### 85명 특별수송지원반 운영...수송관리 및 불편 민원 대응

전라남도는 설 연휴 기간 귀성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섬 방문을 위해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 수송대책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설 연휴 연안여객선 수송 수요 증가에 대비해 도내 운항 52개 항로에 여객선 3척을 추가 투입한다.

기존 여객선의 운항 횟수를 늘려 76척의 여객선이 평시보다 202회 증편, 총 2천468회를 운항하게 된다.

이번 연휴의 연안여객선 수송 규모는 이용객 11만여 명, 차량은 3만 1천여 대로 전년보다 6% 정도 증가가 예상돼 일일 평균 약 40회 정도 추가 운항한다.

수송 규모 2~3% 증가로 평균 32회 증편한 전남도 수송 능력을 대폭 강화해 귀성객의 안전 운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휴는 설 명절 당일날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박 접안시설, 여객선터미널 편의시설 등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터미널 및 대합실 방역 위험 요소를 중점 관리한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설 연휴 기간 17개 반 85명으로 특별수송지원반을 구성해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를 통해 수송 현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불편 민원에 적극 대응하는 등 이용객의 안전과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현미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섬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객선을 이용하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관리와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업수요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통해 '청년, 일자리, 미래산업'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산단으로 육성하며 근로자

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 김동연, "일자리 활성화로 안산 반월산단 재도약 계기 만들 것"

### 김동연 지사, 6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안산 반월산단 일자리 활성화 간담회'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내 최대 뿌리산업 집적단지인 반월산단이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6일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다목적실에서 전해철·고영인 국회의원, 반월산단 입주기업, 산단단지공단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산하기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 반월산단 일자리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3주 전 다보스포럼에서 기술진보와 기후변화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치열하게 논의하는지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꼈다. 오늘 공단 활성화 방안 발표에도 이 두 가지가 충분히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반월산단이 다시금 재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정재정,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경제 육성에 대해 정부가 역주행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가장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다"면서 "R&D예산도 정부는 삭감을 했는데 경기도는 증액했

다. 정부 삭감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반월국가산업단지는 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 철강 업종 등 국내 최대규모의 중소기업 집적단지로, 수도권 주력 산업을 보조해 주는 부품·소재 뿌리공정 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다.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일원 1,537만 4,200m<sup>2</sup> 규모에 8,538개 업체가 입주해 11만 1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반월산단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는 이날 산업전환, 공간재편, 생활여건개선 등 3대 방향으로 스마트허브형 디지털제조혁신 종합지원체계 구축, 저탄소·고효율에너지 그린산단 조성, 청년친화 복합문화공간 확충, 산리단길 조성 등을 통해 반월산단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구인구직 플랫폼 '잡아바' 개편, 미취업 청년과 중소기업을 연결하고 일경험(인턴십)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반도체·뿌리산업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대학교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대학생취업브리지' 등을 추진한다. 또 청년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시, 산업단지공단 등과 함께 다양한 노후산단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으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조성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에너지자급자족인프라 구축 ▲캠퍼스혁신파크 조성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이 같은 반월산단 발전 방안과 일자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 후 참석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김 지사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어진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최철호 (사)스마트허브 경영자협회장은 "반월공단이 브랜드산단이 됐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 기숙사는 물론이고 카페거리라든지 체육시설,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청년들이 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에 "브랜드산단에 적극

찬성한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예산을 따고 이런 것도 좋지만 경기도가 자발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기획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볼테니 산단에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들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 ▲실질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 ▲중소기업 근로자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주택 구매 지원 ▲산단 내 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해 분석장비, 소프트웨어 등 지원 ▲정부나 지자체 지원 예산이 잘못 쓰였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센터 설립 등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기업인들의 의견에 적극 검토를 약속하며 "1월에 북부기업인들을 만나며 기업인들과 상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자고 했다. 기업인들,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준 것만으로도 어쩌면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거다. 빠른 시일 내에 직접 컨택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다양한 산단 활성화 사업과 기



##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늘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소통과 화합, 협치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www.goyangcouncil.go.kr





# 경북도의회, 의회 역량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나서

##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는 지난 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의 책임을 맡고 있는 동국대학교 이준호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광역의회의 자치법규를 비교분석과 국회 관련 법규체계 분석을 결부하여 지방시대에 발맞춘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규택 의원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

히 하고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의회 관련 자치법규 확립이 우선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기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는 박규택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백순창, 연구식, 이동업, 정경민, 최덕규, 최병근, 최병준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됐으며,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에 대한 체계 정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준비 연구회', 100만 화성시대 맞아 합리적인 대안 모색하고자 토론회 실시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의회 준비연구회'는 6일 100만 화성시대에 맞는 의정환경 변화 예측 및 방향 설정을 통해 특례시의회 전문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화성특례시의회 준비 토론회'를 개최했다.

'화성특례시의회 준비연구회'는 오문섭 대표의원을 포함하여 장철규, 전성균, 명미정 의원 등 24명 화성시의회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단체는 100만 특례시를 대비하여 화성시의 특례시 인정에 따른 사무배분 및 화성시의회 역할 대응에 관한 연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인봉 교수(신한대학교 행정학과) 1주제로 '특례시 대비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100만 특례시 관련한 주요 과제를 점검하고 이어 배귀희 교수(숭실대 행정학과)가 2주제로 '특례시 대비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을 차등적 주권으로서 특례시 제도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이어서 종합토론은 이원희 교수(한경국립대학교 총장)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오문섭(연구회 대표의원), 장철규(연구회 1분과 조직진단 및 기능강화 분과장), 전성균(연구회 2분과 행정분과장), 명미정(연구회 3분과 신청사준비 및 의회 아카이브 분과장), 김영식(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조미옥(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의원과, 박현욱(경기대 행정학과), 최낙혁(가천대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

자로 나서 특례시의회의 조직 모형발굴, 지방자치 권한 확대, 의정환경 변화 예측 및 방향 설정을 통한 특례시의회 전문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열린 토론회를 했다.

1분과장인 장철규의원은 특례시의회를 대비하여 의회 조직 모형 발굴과 화성시의회 전문 및 상임위원회 증설을 요구했으며, 조직권 독립과 예산권 확보 등을 주축으로 한 의회 기능강화를 주장했다.

2분과장인 전성균 의원은 다양한 의정수요에 보답하기 위해 전문 인력 확보와 체계적인 인사체계구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인사시스템 구축(안)을 바탕으로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특례시 간 협업을 강조했다.

3분과장인 명미정 의원은 의회 역사 기록물관이 전시 등을 통해 시민들이 의정활동에 대해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시민과의 복합문화소통공간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당부했다.

오문섭 대표의원은 "특례시 지정은 행정 및 의회의 역할 범위가 기존과는 달리 넓게 확장되는 것이며, 우리의 역할과 준비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준비되는 시간이 된 거 같다"며 토론회 소감을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김영희 의장을 비롯하여, 유재호, 이은진, 조오순, 이해남, 김미영,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오문섭, 이용운, 장철규, 전성균, 차순임, 화성시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양시현/기자



# 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 피난수도의 역사적 아픔, 석면 주거지 정비 시급!

## 석면 등 주거환경 관련 제도적 정비 등 부산시의 적극적 대책 촉구

2024년 2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형철 의원(국민의힘, 연제구2)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법·제도권 밖의 무허가건물 주거지에 대한 석면 제거 등 주거 환경정비를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6·25 전쟁기에 피난민들의 주거지였던 연제구 물만골, 동구와 진구에 걸쳐있는 안창마을,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영도 흰여울 마을, 갯강이마을 등은 현재,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부산글로벌허브도시'의 새로운 구상지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무허가 건축물이 많고, 석면슬레이트 지붕에 30년 이상 된 노후·협소주택들이다.

특히,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무분별하게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은 악성종양증, 폐암, 석면폐증 등

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지만, '무허가(비대상)'라는 이유로 방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앞서 열거한 지역의 일부 지역은 도시가스화 수도 미공급지역이며, 3~4가구가 공동으로 화장실을 사용할 정도로 지역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해 있다.

이에 김형철 의원은, "이들 주거지에 걸려있는 안창마을,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영도 흰여울 마을, 갯강이마을 등은 현재,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부산글로벌허브도시'의 새로운 구상지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무허가 건축물이 많고, 석면슬레이트 지붕에 30년 이상 된 노후·협소주택들이다.

고령자"라면서, "본인이 석면 피해 당사자인지 알지도 못한 채, 사망한 경우도 많으며, '석면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도 현실과 동떨어져 지원책이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석면제거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부산형 석면 건강 영향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조속한 석면 제거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부산시는 석면 피해자 대상 범위 확대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정부, 부산시, 기초자치단체와 논의하여 충분한 예산마련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에게 석면 관련 제도적 정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집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가장 기본조건이다"면서, "안전한

주거 공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권 밖에 놓인 이들의 주거환경을 '양성화'하는데 다 함께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김희태/기자



# 박종필 대구시의원, 상수도 행정 역량 강화 촉구

## 박종필 대구시의원, 상수도 행정 역량 강화 촉구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등 상수도 행정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2020년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장에서는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연이은 사고의 원인으로 관계자들의 안전지식 부족, 운영 관리의 미숙함 등이 지적됐다"고 언급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통해 운영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됐는지, 조직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수도 행정은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을 접목해 새로운 운영 모델을 정립해 나가야 할 대전환의 시기를 맞았다. 기후 위기와 급변하는 기술 발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조직체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박 의원은 "상수도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정수, 수질, 기계, 전기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야말로 반복되는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상수도 경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다"라고 말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기계, 전기, 화공 등 분야별 인력을 확충하고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에 능한 기술인력을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대구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오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며 위험감지센서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윤근수/기자

#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 첫 회의 열어

## 제243회 임시회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으로 확정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6일 11시30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올해 첫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43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15일부터 28일 까지 14일간 제24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임시회에서는 2월 15일 오전 10시 개최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결위되어있는 의회운영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보임하고 시장과 교육감의 2024년도 시정연설 청취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상임위원회별 주요업무보고 청취, 각종 안전 심사 등 상임위 활동에 이어 임시회 마지막 날인 28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황규진/기자



# 광진구의회, "설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광진구의회와 함께해요!"

##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및 구매 물품은 관내 복지시설에 전달하여 이웃사랑 실천

광진구의회가 지난 5일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장보기 행사' 및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설 명절맞이 장보기에는 가 선거구 의원들이 신성전통시장을, 나 선거구 의원들이 화양·능동시장을, 다 선거구 의원들이 자양전통시장을, 라 선거구 의원들이 노란산·영동고 골목시장을 방문하여 미리 준비한 '온누리상품권'으로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제수용품을 직접 구입했다. 또한 상인들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전통시장 이용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어 구매한 물품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내 복지시설 등에 전달하여 작은 나눔도 실천했다. 추운구 의장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고물가,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

내고 계신 전통시장 상인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같은 시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아오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진구의회는 매년 명절을 맞이하여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과 장보기를 통해 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살리기에 앞장서 오고 있다.

강성원/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편집국장:최재은.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문화부:내선 (116)  
 사회부:내선 (113)      부산본부:내선 (117)  
 경제부:내선 (114)      오키나와부:내선 (118)  
 광고국:1899.9659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합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경기도,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 열고 설 민생 안정·안전관리 대책 논의

경기도, 7일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 개최

24년 설 민생 안정대책 5개분야 24개 대책 추진, '기회가 넘치는 명절' 준비  
대설·한파, 동절기 취약시설 화재, 겨울철 지역축제 등 설연휴 안전관리 강화

경기도는 7일 경기도청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설 민생 안정대책, 설 연휴 재난안전 대비 등 도-시군간 공고한 협력이 필요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물가안정에 힘써 '장바구니 걱정없는 설 연휴' 분위기를 조성하고 화재 취약시설, 겨울 지역축제,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등 재난 예방관리를 철저히해 도민 안전과 생명 보호에 누수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기회가 넘치는 명절, 도민 모두가 행복한 설 연휴'를 위해 ▲민생안정 ▲보건복지 ▲교통·편의 ▲문화 ▲안전 등 총 5개 분야 24개 대책을 추진하고, 나흘의 연휴기간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또한 설연휴기간 24시간 재난상황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대설·한파의 선제적 대비, 동절기 취약시설 화재예방, 겨울 지역축제 합동 안전점검 등 분야별 안전 관리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밖에 오 부지사는 임신 사전건강

관리 지원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명선거 추진, 24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신청 홍보 협조 등을 당부했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회 청사 환경 관리 직원과 소통의 시간 가져

김정호 대표의원, 청사 환경 관리 직원 격려 및 건의사항 청취, 근로여건 개선 의지도 밝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은 6일 쾌적한 의회 청사 환경을 책임지며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청사 환경 관리 직원들과 오찬을 결정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양우식 수석부대표, 이해형 수석대변인, 이은주 기획수석과 염규임 미화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깨끗한 의회 청사를 위해 누구보다 일찍 아침을 시작하는 의회 청사 환경 관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함께 진행된 오찬에서 김정호 대표 의원은 "오늘 자리한 직원분들은 매일 제일 먼저 출근해 의회를 열고 상

쾌한 근무를 선사해 주시는 분들"이라며 "이 일에 대한 애정과 의욕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임을 잘 알고 있다"고 격려했다.

오찬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청사 환경 관리 직원들은 ▲힐링과 사기 충진을 위한 워크숍 개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직원 층원 ▲편의시설인 샤워실의 조속한 완공 등을 제안했다.

이에 김정호 대표의원은 "오늘 건의해 주신 내용들을 국민의힘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열악한 근로 여건 개선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언제나 개방돼 있으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개치 말고 방문해 달라"고 전했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남경순 부의장,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적극 홍보

북수원시장에서 장보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으세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 중인 남경순 부의장(수원1, 국민의힘)이 다가오는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6일 전통시장 장북수원시장을 방문했다.

오늘 방문은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월 2일부터 2월8일까지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

급행사'를 추진하는데 참여시장으로 북수원시장이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았다.

남경순 부의장(수원1, 국민의힘)은 현장에서 시장상인들을 만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시장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며, 명절 준비를 위해 자리를 보러 북수원시장을 방문한 지역주민들께 구입 금액별로 지

급 받을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정보를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 홍보했다.

설을 앞두고 높아진 물가 부담으로 소비자들 지갑을 열기 주저하고 있고 특히, 과일값이 무서워 과일을 구매하기 어렵다고 하는 분들에게 이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적극 활용하라고 말했다.

남경순 부의장(수원1, 국민의힘)은 "매년 찾아오는 설명절이지만,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 만큼은 명절차례상 준비와 설명절 선물은 전통시장 판매 물건들로 채워주시길 당부하며, 대형마트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전통시장의 精을 함께 나누자고 하면서, 과일 등 농수산물 직접 구매를 하면서 홍보했다.

시장상인들은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로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많아졌다고 말했고, 시장을 찾은 시민들도 환급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보여주며 설명절 세뱃돈을 받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2월8일까지 진행되며, 구매 금액별로 1인당 최대 4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교육청에 경기형 늘봄학교 안정적 추진 당부

김정호 대표의원, 학부모 의견 폭넓게 청취해 2학기 전면 시행에 박차 가해달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은 6일 경기도교육청 늘봄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경기형 늘봄학교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보고 받고, 경기형 늘봄학교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에서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이은주 기획수석, 이해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 김선희·김현석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협력과 김민숙 과장, 돌봄교육담당 배영하 장학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늘봄학교는 교육부가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양질의 교육프

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시행해왔다. 올해부터 대폭 확대돼 1학기에는 2천 개교 이상에서,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춰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중심형 ▲지자체 협력형 ▲지역자원 활용형 등 다양한 경기형 늘봄 모델을 구상 중이다. 또한, 2학기 전면 시행을 앞두고 늘봄지원실 인력 구성 및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정호 대표의원은 "경기형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학교 현장 정착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부모님들의 의견과 바람을 폭넓게 청취하고 경기도 맞춤형 늘봄 모델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늘봄학교가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지역 사회의 많은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분야별 전문가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함께 면밀히 살피자"고 주문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일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앞으로 초등학교는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를 통해 국가가 전면에서 나서 모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돌봄과 사교육 등 양육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생률 반등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김범상/기자

Art Valley ASAN

시민과 함께하는  
복합 문화예술플랫폼이  
펼쳐집니다

고품격 문화예술 도시 아산  
신정호 아트밸리를 품다



# 광주시 신현동, 2024년 노인 일자리 발대식 개최

광주시 신현동은 6일 행정복지센터에서 노인 일자리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 신현동 노인 일자리 사업은 2월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발대식에서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활동 교육을 실시했으며 사업 참여에 필요한 물품들을 배부했다.

박기주 동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어르신들이 각 마을을

청소함으로써 마을도 청결해지고 어르신들도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이 고르게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신현동 노인 일자리 대상자는 신현동에 거주하는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이며 총 40명을 선발했다.

김범상/기자



이천시 2024년 수도물 공급 종합 관리계획 발표와 함께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 등 7개(수도공급 비상연계 시설 확충, 이천취수장 시설개선 및 취수원 추가확보 계획, 상수도 시설물 확충사업, 도수관로 중간가압장 설치공사, 이천정수장 노후설비 개선 및 정밀안전진단 사업, 체계적인 수도관망 점검 및 관리방안 수립)의 역점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4년도 주민과의 대화 시에도 수도물 관련 건의사항이 증가되어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민체험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가운데 이천시 상하수도

## 이천시 “수도계량기 보호틀 교체”추진

사업소(수도과)에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수도계량기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틀에 대한 교체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계획중인 노후 수도계량기 보호틀 교체사업은 1975년부터 수도물을 보급한 이래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천시 전체 수도계량기 보호틀 48,633조(2023.12월말 기준)중 10~20%정도 노후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부식 및 파손되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전수조사 후 교체대상을 선정,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천시 수도계량기 보호틀은 2021년에는 41,352조/ 2022년에는 46,700조 / 2023. 12월말 기준 48,633조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수도계량기 보호틀의 경우 일반적으로 두께가 파손된 경우 겨울철 눈 또는 빗물 등이 들어가 수도계량기 동파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보행자의

낙상 사고 등 안전상의 문제도 우려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천시 수도과 관계자는 노후 수도계량기 보호틀 교체사업을 추진하게 됐음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업대상은 사전 조사를 통해 검토·확정 예정이며 2024년도 추진지역은 우선적으로 인구밀집도가 높고 교통약자 등 어린이 보행자가 많은 동지역(창전동, 관고동, 중리동) 3개동에 약 100개소 이상(2024년 사업비 100백만원) 교체 예정이며, 2025년 ~ 2026년까지 총사업비 400백만원 전액 시비를 투자하여 단계적으로 교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천시에서는 해당 사업 외에도 매년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사업도 추진 중에 있으며, “민선8기 들어 현재까지 5,847건의 노후 수도계량기에 대한 교체를 추진완료 했다”고 전했다.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은 이천시내 수도계량기 중 경과연이 지난 노후 계량기에 대한 교체사업으로 원격검침

이 가능한 최신행 동파방지 디지털 수도계량기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이천시 수도과에서는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하고 있으며 원격검침이 가능한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하여 누수와 오검침을 방지하고 정확한 수도요금 고지를 통한 시민들의 수도행정 신뢰도 향상에 힘쓰고 있다.

이천시는 금번 노후 수도계량기 보호틀 및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을 통해 보행로 미관 개선과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이천시 수도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천시장 김경희는 “이천시는 2024년을 시작으로 수도물 공급 종합 관리계획 추진을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물 공급을 위한 기반을 다질 것이며, 이외에도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하남시, 출산장려 지원 확대정책 펼친다

하남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출산 장려 지원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거주제한과 2월부터는 난임 시술 간 칸막이도 폐지했다.

오는 4월부터는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 비용을 ▲여성의 경우 난소 기능 검사와 초음파검사 10만원 이내 ▲남성은 정액검사 등 5만원 내 지원하며,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은 최대 100만원, 부부당 2회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공산포 발생 등의 이유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고 시술 중단 의료비 최대 50만원까지 보충 지원해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첫난임이용권 바꾸어 지원 금액을 둘째 자녀부터 300만원(기존 출생아당 200만원)으로 확

대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대상 기저귀 구매비용 월 8만원에서 9만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확대해 육아 필수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형 우수정책’으로 인정받은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 아빠 육아휴직수당을 널리 혜택받도록 개선하고 있다”며 “임산·출산 지원 혜택을 더욱더 강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더 살기 좋은 화성’ 화성시, 설 연휴 맞아 종합대책 수립

화성시가 ‘걱정 없는 명절, 더 살기 좋은 화성’을 위한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시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총괄반을 비롯해 ▲재해 ▲가축질병 ▲비상진료 ▲수질오염 ▲산불 ▲상하수도 등 총 13개 반 536명으로 종합 상황반을 구성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시는 설 연휴기간 공백 없는 24시간 재난대응 및 응급진료·방역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대형마트 및 다중이용시설 9개소, 고속도로 상에 있는 주유소 6개소 등 위험시설의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해 사회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소에 24시간 응급진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등 24시간 진료 의료기관 5개소와 약국 1개소가 운영되며,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에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육로와 항로를 통해 권역의료센터인 아주대병원으로 이송하게 된다.

이외에도 장바구니 걱정 없는 명절을 보내기 위해 ▲물가안정대책반 편성 운영 ▲성수품 18개 품목 중점 관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 ▲지역화폐 인센티브 10% 지급 ▲로컬푸드 판매점 할인행사 등 시민 대상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이 밀집지역은 11시부터 15시까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아울러 소외되는 계층을 위해 결식 아동 급식지원, 노숙인 보호, 복지시설 위문 등 따뜻한 명절을 위한 복지대책을 추진하며, 연휴 쓰레기 감량을 위해 자막방송 등 주민대상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연휴기간 중 생활쓰레기 배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설 연휴 중 9일과 12일은 정상 수거한다.

또한, 8일부터 12일까지 5일 간을 ‘2024년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귀경·귀성길 정체 해소 및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설 연휴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며 화성시 유료 공영주차장 47개소를 무료로 개방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계 공무원들에게 “명절기간 시민안전 및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연휴기간 문화·관광·체육시설 운영일 등 연휴대책 정보는 화성시 공식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과 응급의료포털(E-GEN)에서 방문 및 진료 가능한 약국, 병원, 달빛어린이병원, 응급실을 찾을 수 있다..

양시현/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설 명절 준비 따뜻한 정 넘치는 전통시장 이용하세요"

### 설 앞두고 용인중앙시장 찾아 상인·시민과 인사 나누고...고기·전·야채·떡 등 장보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중앙시장을 찾아 직접 장을 보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장을 보기 위해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명절 인사를 건넸다.

이 시장은 부인 김미영 여사와 이순환 용인중앙시장 상인회장, 시 관계자들과 함께 시장 내 점포를 40여 분가

량 돌며 직접 장보기에 나섰다.

이 시장은 고춧가루, 참·들기름, 정육, 야채, 전, 떡 등을 구입했다. 장을 보며 만나는 상인들과 시민들에게는 일일이 “설 명절을 잘 보내시길 바란다”고 인사를 건네고 상인들의 애로사항도 들었다.

한 시민은 이 시장에 “소식지를

통해 이 시장의 활약상을 잘 보고 있는데 시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고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자랑스럽다”며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란다”고 먼저 인사를 했다.

이 시장은 “칭찬을 들으니 오히려 제가 큰 위로를 받는 느낌”이라며 “설 명절 다복하고 풍성하게 보내시길 바라고, 저도 우리 110만 용인특례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중화요리 전문점을 찾아가 “경기가 힘든데도 가격을 올리지 않고 시민들이 맛있는 음식을 좋은 가격에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시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 시장은 장보기가 끝난 후 용인중앙시장 상인회, 민생경제과 직원들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지역 물가안

정 캠페인도 진행했다.

시장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용인중앙시장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이버 ‘동네 시장 장보기’ 서비스를 통해 용인중앙시장 설 명절 성수품인 떡, 전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처인구 김량장동, 고림동, 마평동, 유방동, 삼가동, 역북동, 둔전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에서 상품을 1개만 구매해도 무료배송을 받을 수 있다. 단, 처인구 7곳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문이 불가하다.

이상일 시장은 “많은 시민께서 이번 설에는 따뜻하고 넉넉한 인심이 넘치는 용인중앙시장에서 명절 준비를 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성남시,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 공공분양아파트 입주자 모집

### 총 242세대 분양... 2월 29일 입주자모집 공고, 3월 11일 청약 접수

성남시가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인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2월 29일에 공고하고 3월 11일에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입주기준은 성남시 및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현재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100% 우선공급 예정이다. 다자녀가구 및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이 약 70%, 일반공급은 약 30%로 배정된다.

성남시의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은 활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 부지(성남시 차량등록소업소 옆)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공분양 아파트를 건립해 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김범상/기자

성남시의 재정으로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가 개발을 위탁받아 금호건설에서 선시공하는 단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경쟁력 있는 공급가로 제공될 예정이다.

세대수는 총 242세대로 전용면적 74㎡ 71세대, 전용면적 84㎡ 171세대가 공급된다. 지상 15~21층의 아파트 4개 동과 근린생활시설 3개 호 규모로 2025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다. 공정률은 1월 말 현재 약 35%이다.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 건보주택은 홈페이지에서 사이버모델하우스 형태로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27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분양사무실은 야탑역 인근에 위치한 홈플러스 건물 2층 110호에 마련되어 있다.

김범상/기자







### 용인특례시, 고기교 확장 위해 하천·교통 분석부터...경기도에 요구

이 시장, "경기도의 분석 결과 나와야 고기교 확장 건설 위한 설계·보상 가능한 만큼 경기도가 조속히 분석을 마무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협력해달라"강조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고기동 고기교 확장 공사 착공을 앞당기도록 경기도가 동막천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교통영향 분석을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시가 길이 25m, 폭 8m, 왕복 2개 차로의 고기교를 길이 40m, 폭 20m, 왕복 4개 차로로 확장하기 위해선 경기도에서 이 같은 두 가지 분석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일 소관부서인 경기도 하천과 도로정책과로 동막천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교통영향분석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민선8기 이상일 시장 취임 3개월째인 2022년 9월 26일 교통체증과 집중호우 시기 수해 발생 등으로 주민들의 해묵은 골칫거리였던 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동 고기교 문제의 해결책이 마련됐다. 오랜 기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견을 노출했던 용인특례시와 성남시가 민선8기 시작 직후 머리를 맞댔고 경기도도 합세해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을 맺어 고기교 재가설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협약에 따르면 경기도는 고기교 확장과 연계하여 동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력키로 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하천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동막천 등 3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계획 용역'을 오는 7월 기한으로 진행 중이다. 고기교 확장 계획 중인 민자도로 사업 등을 포함한 주변도로 개선을 위한 교통영향분석 연구 용역을 하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가 주관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하천정비 계획안을 담은 하천기본계획을 경기도가 변경·고시한 후 실시계획까지 이뤄져야 그 다음 순서로 교통영향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교통영향분석은 지난해 12월 멈춘 상태다. 용인특례시는 이 두 가지 분석 결과가 적기에 나와야만 성남시와 적극 협의를 통해 고기교 재가설에 대한 보완 설계 용역에 들어갈 수 있고, 2025년 말까지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2026년 말에는 확장된 고기교를 시민에 개방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시는 경기도의 분석 결과만을 기다리다가는 도시 발전이 지연된다고 판단, 주민 불편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대책은 독자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고기교부터 정면 방향 200m 구간(중1-140호)의 상습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기동 164번지 일원 80m에 대한 토지 보상과 도로포장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기동 주민들의 숙원이던 고기교 보도교 설치도 인근 사회복지시설 사업자 부담금 사업으로 올 상반기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진 3자 간의 협약이 본래 취지대로 이행되려면 그 첫 단추인 경기도의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교통영향분석이 서둘러 진행돼야 하는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력해주시기 바란다"며 "고질적 교통난과 침수 피해 등으로 불편을 감수해 온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 제26차 정기총회 개최...올해 사업 본격 시작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올해 계획한 지속가능발전 정책역량 강화 및 민간 거버넌스 활성화 등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6일 안양시에 따르면, 지속협은 이날 오후 2시30분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지속협 위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6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활동 우수 위원에 대한 시상식, 지난해 사업 결과 보고, 결산 승인,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정관 개정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지속협은 경희대 디지털뉴에이징연구소 및 안양시사회적기업협의회와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어 '안양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전략과 지속협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박숙현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소장의 강연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또 한걸음'이라는 주제로 이동준 전국

지속협 사무총장의 강연이 진행됐다. 지속협은 이날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정책역량 강화 및 민간 거버넌스 활성화 ▲안양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사업 실천 ▲지속가능발전 기획사업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대시민 홍보 활동 등을 시작한다. 양속정 지속협 상임회장은 "올 한해는 지속협 위원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을 추진하며 미래세대에게 부끄러움 없는 안양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회장인 장영근 안양시 부시장은 "작년에 수립한 안양형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는 비전을 실행하고 종합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더욱 중요성이 커진 만큼 위원분들께서 과제 발굴과 실천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청했다. 신우용/기자

### 여주시 가남읍, '설 정(情) 나눔꾸러미' 선물세트 전달

저소득 가구에 나눔꾸러미와 사랑 전파

가남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6일 취약계층 이웃들이 풍요로운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설 정(情) 나눔 꾸러미' 사업을 추진했다. 가남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소득 80가구에 각종 먹거리 및 생활필수품 11여 가지를 담은 '나눔꾸러미' 선물세트를 만들어 부녀회장으로 구성된 행복드림단과 협의체 위원들이 각 마을(40개) 대상자에게 배부하며 안부를 확인했다. '나눔꾸러미' 선물세트 구성품목은 떡국떡, 약과, 김, 과일, 과자, 생활용품 등 다양하게 키트(6만원 상당)를 제작하고 (주)이푸드에서 설렁탕 175개, (주)삼호에서 돼지불고기 200팩을 후원하여 보다 더 풍요로운 설명절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김동식 민간위원장은 "나눔꾸러미 선물세트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정과 사랑을 함께 느끼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란다."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다양한 복지사업으로 다가가겠다."고 전했다. 이복환 가남읍장은 "적극적인 민-관 협업으로 저소득 위기가구들이 동절기

겨울을 잘 보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더욱더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가남읍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김범상/기자

### 고양특례시, 능곡1구역 조합 도로공사비(67억원) 청구 소송 '1심 승소'

2023년 4월 능곡1구역 조합, 도로공사비(67억원) 시에 청구 소송 제기

고양특례시는 능곡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서 제기한 도로공사비(67억원) 청구 소송에 대하여 10개월 간의 재판 끝에 '고양특례시 승소'판결이 나왔다고 7일 밝혔다. 능곡1구역은 구역면적 40,519㎡, 8개동(지상34층) 643세대로 지난 2023년 1월 17일 전체 준공되어 고양특례시 속진지구 내에서는 최초로 사업이 완료됐다. 재정비촉진계획의 기반시설 비용 부담 계획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따라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는 삼성지하차도 확장을 추진하여 2022년 12월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 개통했다. 2023년 4월 능곡1구역 조합에서 삼성지하차도 확장에 따른 도로 공사비 약 67억 원을 고양특례시에 청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됐으며, 지난 2일 1심 재판부는 원고인 능곡1구역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 표명섭 도시정비과장은 "작년 8월 능

곡6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은 2심 끝에 시의 승소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금번 능곡1구역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한 1심에서 시가 승소함으로써 능곡 재정비촉진구역 내 조합의 무분별한 소송청구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조합측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배워서 실천하는 아이신나! 경상교육
성장하는 나! 조화로운 우리! 함께 여는 미래!
교육공동체와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경험과 바른 성장에 힘쓰겠습니다.
교육장 이병근



# 전남도, 설 연휴 민생걱정 덜고 행복 더한다

## 물가안정·재난 안전 등 11개 대책반 종합상황실 운영

전라남도는 설 명절 기간 도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연휴를 보내면서 민생 걱정은 덜고 행복은 더하도록 9일부터 12일까지 11개 대책반으로 구성된 설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누적이된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경기 불확실성으로 내수와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도록 물가·민생안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8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22개 시군과 함께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바가지요금 근절,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등 지속적인 물가 관리를 통해 도민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추진한다. 주요 대책은 ▲온라인 쇼핑물 납도장터 설 기획전 30% 할인 행사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주변 도로 주차 허용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시군별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 판매 ▲착한가격업소 이용 홍보 등이다.

이와 함께 각종 재난·재해사고 예방과 유사시 신속 대응을 위해 전남도 재난상황실 및 119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인파가 몰리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여객시설, 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46개소에 대해 지난 1월 26일까지 안전점검을 마쳤다.

또한 이번 설은 짧은 연휴로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시외버스·열차 증편과 안전 점검 등 대중교통 분야 대책을 추진하고 교통 불편 신고 및 교통사고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중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문 여는 병원과 약국을 운영한다.

도내 지역응급의료기관(35개)과 병·의원(401개), 보건기관(281개), 약국(747개)을 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해 도민, 귀성객이 언제든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했다.

강영구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연휴 기간 전남을 방문하는 귀성객, 관광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도민들께서 가족·친지·이웃 등



과 안전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휴기간 각 시군에서 이용가능한 병원과 약국 정보는 전남도 대표 누리집, 응급의료 누리집 또는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배/기자

# 함평군, '2024 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

## 분야별 상황실 운영, 민원발생 최소화 노력

전남 함평군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2024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설 연휴기간 동안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소비 확산 및 물가안정 도모 ▲각종 재해재난 방지 ▲빈틈없는 보건·진료체계 구축 등 11개 분야에 대한 세부 계획을 추진한다.

연휴기간 동안 군청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대책반을 운영하여 군민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함평천지전통시장과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물가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설 물가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명절 나기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아울러,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응급의료시설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운영하여 빈틈없는 안전과 보건·진료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설 연휴 종합대책을 철저히 운영해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 나주시,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 업무 협약 체결

## 빛가람동·성북동 3개 병원에서 'B형·C형 간염' 무료 검사 실시

전라남도 나주시는 40세 이상 간암 고위험군의 'B형·C형 간염'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기 위해 내과의원 3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간암 발병 원인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성간염의 조기검진과 치료를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나주시와 협약을 맺은 병원은 빛가람동 '한가람내과의원', '속편한내과의원'과 성북동에 위치한 '이산근연합내과의원'이다.

간암은 국내 암 사망률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고위험 암으로 약 70%가 B형·C형 간염으로 인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기에 치료하지 못하면 만성화되고 간경변 또는 간암으로 악화될 수 있어 사전 검사를 통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C형간염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데다 예방 백신 또한

없어 조기 치료와 관리가 중요한 만큼 사전 검사를 권장하고 있다.

보건소, 보건지소·진료소에서 B형간염(항원·항체), C형간염(항체) 혈액검사 키트를 발급 받아 지정 병원에 제출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당해 연도 간암(국가암) 검진 대상자와 전년도 B형·C형 간염 검사자는 제외된다. 자세한 문의는 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보건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한편, 검사 후 사후관리로 B형·C형

간염 유소견자는 국가암(간암) 검진 대상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할 수 있고 B형간염 항체 미형성자는 혈액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가면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예방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의 간암 이환율을 낮춰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 남원시 노인일자리, 100세 인생 아름다운 도전!

## 2024년 산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 개최

남원시 산내면행정복지센터는 2월 6일 “2024년 산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살기좋은 고을 가꾸기』”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산내면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형 일자리로 65세 이상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시행되며, 참여자는 3개 부분으로 나뉘어 구절초 식재구간 관리, 도로변 풀베기, 화단관리 등 산내면의 청결한 마을 가꾸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활동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첫 시적인 발대식은 양인환 면장의 인사 말씀, 노인일자리 사업 안내, 어르신들의 작업 시 근무 수칙, 안전교육 순으로 진행했으며, 어르신들의 몸과 마

음을 즐겁게 해주는 건강 노래와 체조를 다 함께 참여하여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제공하고 노년기 건강증진은 물론 소득 창출, 자신감 고취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내면장(양인환)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어르신들의 100세 인생에 아름다운 도전이 되기를 바라며, 2024년 10개월 동안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기좋은 고을 가꾸기 활동으로 살고 싶은 산내면 만들기를 위해 애써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남출/기자



# 강진군, 2024년 푸소(FU-SO)체험 신규 농가 모집

## 연중 수시 모집, 연평균 1천만원 부수입 올려

강진을 대표하는 농촌 체험형 관광상품인 '푸소(FU-SO)'가 정책 9년차를 맞은 가운데, 대대적인 신규 운영자 모집에 나섰다.

푸소 운영은 농어촌민박이 가능한 주택을 소유하고 푸소 체험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규 농가 신청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강진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 첨부 되어있는 신청 서식을 작성해, 강진군청 문화관광실 푸소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군에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선발한다.

코로나19 이후 추축했던 관광 시장이 활기를 띠며 강진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지난 한해동안 학생 및 일반인 7,626명이 푸소 체험을 마쳤고 농가 연

평균 수입은 1천만원을 넘어섰다.

군은 푸소 운영 농가를 늘려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푸소체험을 확대시키고 다양한 연령층을 겨냥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올해 이미 30개 학교 5,600여 명의 학생들이 학생 푸소 체험을 예약했고, 친환경 생태체험프로그램, 리더십성프로그램 등 신규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된다.

또한, 관외 지역에서 푸소 체험 운영을 위해 강진으로 이주할 경우, 푸소 운영 주택 신축지원 사업 관련해, 최대 5천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푸소 운영을 희망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주택리모델링 지원사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추운호/기자

# 청룡의 해 첫 황금연휴, 가족여행도 순천하세요!

##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등 순천시 주요 관광지 설 연휴 정상운영

순천시는 이번 설 연휴 기간 순천만습지, 순천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등 대표 관광지를 휴무 없이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설 연휴 기간 지역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즐겁고 안전한 여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일제 환경정비와 함께 시설물을 재점검하고 가족 단위 여행객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설 명절 연휴 기간 한복을 입은 방문객들은 순천만습지, 순천 낙안읍성, 뿌리깊은나무박물관, 드라마촬영장에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 철새들의 월동지 순천만습지 순천만습지는 세계유산이자 철새들의 월동지로서 대한민국 대표적인 겨울 관광 명소이다.

갯벌에 펼쳐지는 드넓은 갈대밭과 S자형수로가 어우러진 해안생태경관 속에서 철새 탐조와 천문대 별빛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2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순천만습지 일원에서 2024 세계 습지의 날 기념 '순천만, 뭐하니!' 특별 시리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새벽에 뭐하니! : 순천만 새벽 탐

조'는 순천만 청정 갯벌에서 먹이터로 향하는 수만마리의 겨울철새 군무를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갈대올타리를 만들어 도시 불빛이 순천만으로 들지 못하게 배려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감동을 만날 수 있다.

· 순천 낙안읍성, 뿌리깊은나무박물관 국내 최초로 성과 마을 전체가 사적으로 지정된 대한민국 3대 읍성 중 하나인 '순천 낙안읍성'에서는 벼 탈곡 체험과 같은 농촌 체험, 전통 혼례, 길쌈 공예, 큰 샘 팔래타, 소원지 쓰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소원지 쓰기 체험에서 작성한 소원지는 오는 24일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 때 함께 태워, 한 해의 소망과 바람이 이뤄지도록 기원할 예정이다.

순천 낙안읍성 바로 옆에 위치한 '뿌리깊은나무박물관'에서는 청룡의 해를 기념한 용모양 킴링 만들기, 새해 소원지 쓰기 체험,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 신년 운세 보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순천뿌리깊은나무박물관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사랑하고 보존하고자 했던 한창기 선생님이 평생 수집했던 약 6,500여점의 한글고서, 민화, 도자기, 전통의복, 전통악기 등을 보관하고 그중 일부를

전시하고 있다.

· 추억과 체험이 가득한 순천드라마촬영장 60년대 서울 봉천동 달동네, 80년대 순천 시가지 등을 재현한 순천드라마촬영장에서는 그 시절에 즐기던 교복복식 체험, 윗놀이, 굴렁쇠, 팽이치기 등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다.

특히 11일, 12일에는 갑진년 푸른 용의 해를 맞아 용 탁본 체험과 연 만들기, 제기 만들기, 소원쓰기 체험 등이 진행된다.

순천드라마촬영장은 드라마 '사랑과 야망'을 시작으로 자이언트, 제빵왕 김탁구, 파친코, 커튼콜, 소방서 옆 경찰서 등 80여 편의 영화·드라마가 촬영되어 우리나라 대표 세트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근대문화유산 기독교역사박물관과 매산등 성지순례길 코스 100여 년의 역사 자료를 간직한 기독교역사박물관은 선교사들의 유물과 자료들을 통해 한국 근대문화와 더불어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설 연휴 동안 매산등 풍경상자 만들기, 야생화 텃밭러 만들기, 플로렌스 식물도감 그리기, 나만의 정원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매산등 일원은 근대문화유산으로서 원

이승준/기자



# 진도군, '맞춤형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 모집

## 관내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발달을 위해...맞춤형 보충식품 꾸러미 지원 등

진도군이 관내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를 모집한다.

맞춤형 영양플러스사업은 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의 영양부족 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6세까지의 영유아 중 영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보충식품 꾸러미를 지원한다.

또한 영양교육과 상담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식생활 관리 능력을 유도하는 영양 건강증진 사업이다.

군은 매년 125명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유, 쌀, 달걀, 감자, 미역 등 10종으로 구성된 영양보충식품을 대상자 특성에 맞춰 6단계로 나눠 1년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영양사와 생애초기 건강

관리 전문간호사가 함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발달상담과 산모 우울검사, 소규모 단체교육과 맞춤형 영양교육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문화가 낯선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임마를 위해서는 한국문화에 한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이를 위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영양플러스사업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도군을 위해 진도군 보건소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민생 중심 도정 운영 시스템 본격 가동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호 결재, '민생 도정 운영계획'

전북특별자치도는 6일 김관영 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다함께민생정책추진단' 킷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생 중심 도정 운영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가계부채 역대 최대치, 전세사기 피해 급증 등에 따라 도민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생 특별대책 수립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1호 결재로 '다함께 민생 도정 운영계획'에 서명했다. 그 자리에서 김 지사는 "새롭게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민생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며, "더 나은 도민의 삶, 도민이 함께 잘 사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함께 민생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생 도정 운영계획에 따라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다함께민생정책추진단'이 구성돼 2월 6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추진단은 행정·경제부처 공무원 단장 체제로 경제, 복지, 건설 등 주요 민생분야의 실·국 부처와 전북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민생시책을 점검하고 발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추진단은 분야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분야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농·어업인 등, 복지분야에는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청년 등 취약계층, 건설분야에는 주거 취약층, 건설기업인, 교통이용자 등을 위한 신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만족도가

높은 기존 사업은 지원대상, 규모 등을 확대해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매주 2회 도정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해 개최된 회 정 책 조 정 회 의 를 민 생 정 책 조 정 회 의 와 정 책 조 정 회 의 로 각각 1회씩 개편·운영한다. 그리고 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해 '다함께 민생 특별대책'에 포함할 민생시책을 보완·확정하여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월 찾아가는 현장정책간담회를 실시하여 민생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긴급한 민생문제 발생 시 '다함께민생정책추진단'을 통해 즉각적으로 대응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후식 기획조정실장은 "경기침체와 함께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이런 위기에는 취약계층의 삶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되어, 도민들의 어려움을 지원코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민생 특별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남출/기자

# 보성군, 2024년 해양수산업 설명회 개최

## '살맛 나는 어촌, 든든한 보성' 해양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강화



보성군은 지난 5일 어업인 등 수산업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보성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해양수산업 설명 및 어업인 교육'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보성군 남해안권역 해양레저관광 거점단지 성장 계획, 해양레저 및 해양생태 분야 강화 방안, 해양수산업 분야 달라지는 제도 등을 공유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시선 7기부터 계속된 해양수산업에 참석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설명했다."

중점 사업은 △울포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300억 원), △보성 별교갯벌 복원사업(70억 원), △어촌뉴딜 300사업(2019~2023) 6개소(약 500억 원), △여객선 청정어장 재생사업(50억 원) 등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기존과 달리 해양수산업정책기술연구소 최갑준(전 전라



전남 완도군은 완도산 수산물에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뢰받고 소비 증대 효과가 소독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 관리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

# 완도군, 수산물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 신뢰도 높인다!

##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해수 방사능 연속 감시 시스템 설치

이에 '방사능 실시간 감시 체계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군 해역의 방사능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해수 방사능 연속 감시 시스템'을 청산면 여서리에 설치했으며,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2월 중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전남도 홈페이지 및 완도군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완도에서 생산되는 전복, 광어, 다시마 등 12개 품목은 출하 시기에 맞춰 방사능, 중금속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도 강화한다.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설 명절 전 제수용 수산

물 원산지 표시 지도 및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완도산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고 부정 유통 차단 및 유통 질서 확립으로 어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영우/기자

# 박홍률 목포시장, 설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방문 격려

## 전통시장 7개소 찾아 상인과 대화 및 현장 목소리 청취

박홍률 목포시장이 설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명절 경기를 살피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박 시장은 지난 6일 종합수산물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항동시장, 중앙시료시장, 자유시장, 동부시장, 신중앙시장, 청호시장 등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며 고충을 청취했다.

박 시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기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계기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전통시장 소비 진작,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촉진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목포시 전 공직자가 설 명절을 맞아 동부·자유·종합수산물·항동·중앙·신중앙·청호시장 등 7개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해 홍보하고 소관 국별로 일 정별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시 공직자들은 수산물 소비촉진과 함께 농축산물 장보기 실천으로 서민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했다.

한편,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중앙시료시장, 종합수산물시장, 동부시장, 자유시장에서는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자유시장, 청호시장, 동부시장에서는 농·축산물 구입 시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진행 중이다. 환급행사 모두 오는 8일까지 계속된다.

박종배/기자



# X-MAS 실증도시·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등 광주광역시, 여야에 '총선공약 35대과제' 제안

## 각 정당에 '총선공약 제안서' 전달...메가시티 광주 등 비전 제시

초거대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 경제자유구역 확대 및 국제학교 신설, 복합쇼핑몰·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등 광주시가 미래 발전을 위한 5대 비전, 35개 핵심과제를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발굴, 각 정당에 이를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광역시는 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한국회의당, 기본소득당 등 각 정당 광주시장 대표자를 초청, '광주시 공약과제(안) 전달식'을 개최했다.

광주시는 전달식에서 ▲미래산업도시 ▲메가시티 광주 ▲광주정신 확산 ▲문화일상도시 ▲시민안심도시 등 5가지 비전을 실현할 광주 정책들을 35개 핵심과제에 담아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약과제는 산업·경제, 사회·환경 등 급변하는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고, 지방시대 실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광주시, 자치구, 광주연구원과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마련했다.

먼저 미래산업도시는 ▲초거대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 ▲대한민국 미래차 전진기지 완성 ▲첨단패키징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Mobility), 인공지능(AI), 반도체(Semiconductor)의 모든 것을 융합(X)하는 'X-MAS 실증도시

시 조성' ▲서남권 최대 광주역 창업 벨리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글로벌 신경계 구축을 가속화한다.

메가시티 광주는 ▲시·도 경계를 허무는 경제자유구역 확대 및 국제학교 신설 ▲선도기업 유치로 통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서남권 M.E.T.A.(Mobility, Energy, Tour, Aging)산업 신경벨트 구축 ▲2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서남권 신경계 거점화 등을 담았다. 또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국가중합계획 반영 ▲달빛 철도 조기 건설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초광역 교통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함으로써 대한민국 3대 거점도시로 거듭난다.

광주정신 확산은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및 국가지원 근거 법제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광주의료원 설립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확대 ▲지역상생형 일자리의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전국 확산을 통해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돌봄민주주의로 완성한다는 내용이다.

문화일상도시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K-스토리 선도도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전문예술극장 건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형 설립 등으로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복합쇼핑몰 건립에 따른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경전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관광철도 구축 ▲신창동 마한역사공원 조성으로 즐기는 도시, 풀썸도시로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민안심도시는 ▲무등산 방포대 이전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전남여고 뒤편 동계천 생태복원, 영산강·황룡강 따라 100리길 조성으로 친환경 생태도시로의 회복을 꾀한다. ▲가름·홍수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스마트워터그리드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 사업 ▲어린이·청소년 등 노약자를 위한 교통비 지원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과제이다.

광주시는 발굴한 공약과제를 전달식에 앞서 광주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각 정당에 제공함으로써 선거 중립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또 앞으로 국비 반영, 입법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 관리할 예정이다. 해당 자료는 광주광역시 누리집(홈페이지) '주요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총선 공약과제는 시정의 모든 분야를 꼼꼼히 검토해 광주가 나아가야 할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해당 사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 정당들이 총선 공약에 꼭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병수/기자

# "통일 시작의 땅, 정남진 장흥" 통일 인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장흥군이 지난 1월 10일부터 군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통일 시작의 땅, 정남진 장흥 2024 통일 프로젝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남북 통일에 대한 생각', '예상되는 통일 시기', '2024년도 통일학술포럼 및 통일열차 운영 방향', '장흥군에서 남북 교류 시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 등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서면 조사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조사로 총 643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통일 기원 여부'에 대해 643명 응답자 중 72.4%인 466명이 '원한다'고 답했으며, 36.2%인

177명이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총 643명의 응답자 중 550명인 85.6%가 "불가능 또는 30년 이상 소요"로 답했다.

또한 23년 운영된 '장흥군 통일프로젝트'에 대해 통일열차(61.1%), 통일학술포럼(14.9%), 통일기원 해맞이 행사(12.8%) 순으로 선호도를 답했으며, 24년 프로그램 운영 시 동일한 비율로 참가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장흥군에서 남북 교류를 추진한다면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농식품 가공 및 유통업' (37.3%)이 북한의 식량 문

제 등을 고려하여 가장 우선 추진사항이라고 답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국제관계가 한층 불확실해진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의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남북교류 중점협력사업 발굴 TF'를 구성하고, '장흥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발족하여 군민들과 함께 분단 극복과 한반도 평화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우리군 자원을 매개로 북측과의 지속·발전 가능한 상생 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 신안군, 변화와 발전을 위한 약속 '청렴'

## 군민의 목소리는 공정과 청렴을 위한 소중한 씨앗이 될 것

신안군은 2024년 첫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청렴 의지를 담은 서한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서한문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반성하며, 2024년을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기관으로 발돋움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다짐을 담았다.

특히, 군민들이 신안군 공직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명확한 채널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자와 군민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이 신안군의 청렴 문화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안군은 소속 공직자에게도 국민 눈높이에 상응하는 공직윤리를 강조하며 조직 내 청렴 문화를 재구축하는 취지의 서한문을 보내 청렴 의식을 고취했다. 아울러, 정기적인 청렴 정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반부패·청렴 정책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부패 취약시기인 설 명절을 맞아 2월 중에 부서별 시책 보고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우량 군수는 "찾아가는 청렴지킴이 및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등 다양한 청렴 정책을 펼쳐 행정이 닿지 않는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직자의 직무 전문성을 높여 군민이 겪는 불편과 부담함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해결하겠

다."라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 경북도 임업경제 활력, 임업인과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산림 구현

## 임산업 활성화, 힐링산림문화 확산, 산림재해 선제대응 등 4,707억 원 투입

경북도는 6일 경북도청 대회의실(화백당)에서 도 및 시군 산림관계관, 산림분야 유관기관장 및 민간단체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산림분야 안전결의 및 시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경북도 산림관계인이 한 자리에 모여 산림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결의대회와 2024년 산림시책을 공유하고 경북의 미래임업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책 간담회를 동시에 추진했다.

산림분야 안전결의대회는 2024. 1. 27.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50인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되어 소규모 산림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가 부여됐다.

이에, 2024년 본격적인 산림사업이 시작되기에 앞서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강화와 산림안전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하게 됐다.

도 사업소 대표 1인과 시군 산림부서 대표 1인으로 구성된 대표자 안전결의 문 낭독과 산림사업 안전보건 추진방안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시책 간담회에서는 2024년 주요 산림정책 추진을 위해 도를 비롯한 22개 시·군, 산림관련단체, 유관기관과 협력 방안을 공유하고, 당면 현안사항인 산림경제 활성화와 임업인 소득증대, 다양한 산림복지진 등지에 대한 열띤 토의가 펼쳐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25기관(시군 22, 민간단체 2, 산림조합 1) 29건의 '우수시책 및 특화사업' 발표도, 시·군,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우수정책과 기관정보 공유의 시간도 마련됐고, 앞으로 경북도 산림분야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과 산림정책 발전의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임업경제 활력 제고, 임업인과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산림 구현을 위해 올해 약 4,707억원을 투입해 경북산림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열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자원 선순환을 통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 임산물의 고부가가치 육성으로 산림소득 증진 및 임산업 경쟁력 강화, 숲속 힐링문화 확산과 산림복지 인프라 확대, 산림재해 선제적 대응 및 건강한 산림자원 보전 등이다.

산림경영 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탄소중립 실천과 산림재해에도 강한 경제력을 육성하고, 국산목재 이용 촉진으로 목재사업 활성화 및 목재문화 저변확대에 힘쓴다.

산림소득 증진 및 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산물 생산·유통기반 확대, 임산물 6차 산업화, 임업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등을 지

원한다. 숲속 힐링문화 확산과 산림복지 인프라 확대를 위해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숲, 산림레포츠시설, 유아숲체험원, 숲길, 경북형마을숲, 지방정원 등을 조성해 도민들의 다양한 산림휴양문화 욕구에 부응할 계획이다.

산림재해 선제적 대응과 건강한 산림자원 보전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산불예방, 초동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산대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방과 산사태 대응체계를 구축,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 등으로 도민의 안전과 건강한 산림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올해를 산림재난(산불, 산사태)으로부터 안전한 경북 실현의 원년으로 삼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지금까지 잘 가꾸어 온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산불방지망 구축과 산사태 예방 생활권 취약지역 안전망 강화 등 새로운 산림정책으로 산불과 산사태에 산림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산불방지 분야는 첨단ICT 및 자율비행기술을 활용한 '드론 산불감시 시스템 구축', 화재센터, 열화상 CCTV, AI 딥러닝 등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24시간 무인감시 시스템인 '산불예방 ICT 플랫폼 구축', 22개 시군의 산불발생 실시간 상황관리 및 산불진화 지휘체계를 구축하는 '도산불상황시스템 디지털화' 등 주요 신규사업을 통해 도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산불방지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사태방지 분야는 산사태 위험지 전수를 통한 Data구축 및 지역단위 산사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산사태 인명피해우려지 산림안전대진단' 추진, 토석류 피해예방을 위한 유역단위 대규모 산림유역관리사업 등 '사방사업 대폭확대 추진(산림유역관리사업 11개소 등)',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 마을, 학교 등을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교육' 시행, 산악기상관측망 구축 확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확대 및 정비, 산사태 위험지 관리강화 법제정 건의(산사태 영향평가 제도 도입, 산림 연결 건축행위 시 허가조건 강화) 등의 산사태 방제작책에 집중하여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조현에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우리도 산림분야 모든 기관·단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소통하여 임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도민에게는 행복을 줄 수 있는 산림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하면서 "특히, 올해는 산림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북 실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윤근수/기자

# 부산시, 설 연휴 생활정보 안내 사이트 운영

## 설 연휴(2.9~2.12) 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분야별로 한눈에 볼 수 있어

부산시는 설 연휴 기간(2.9. 부터 2.12.) 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생활정보 안내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활정보 안내 사이트는 ▲안전 ▲의료 ▲교통 ▲문화관광 ▲환경 등 분야별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았다.

안전 분야에서는 설 연휴 기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날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안전 수칙과 연휴 기간(2.9.~2.12.) 영락·추모공원 정상 운영 정보 등을 안내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시민들이 건강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문어는 병원·약국을 비롯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조제기관 정보를 소개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부산지역 시내버스 연장운행(2.8 부터 9.) 정보, 실시간 교통정보와 전국 고속도로 교통상황 등을 제공한다.

또, 부산권 주요 고속도로 정체 예상 구간과 우회도로 현황도 안내해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게 한다.

특히, 2월 8일 자정부터 2월 9일 오전 1시 30분까지 시내버스 4개 노선 연장운행 정보와 연휴 중 시내 유료도로 8곳(광안대교, 부산항대교, 을숙도대교, 거가대교, 백양터널, 수정산터

널, 산성터널, 천마산터널)의 통행료가 면제되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관광 분야에서는 길어진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체험과 전시프로그램 운영 정보를 안내한다.

부산박물관의 '새해엔 하이유', 정관 박물관의 '어서 와, 청룡', 부산근현대역사관의 '퀴즈왕 : 설날편', '가장 가깝고 은밀한 역사' 전시 등과 부산현대미술관의 '노래하는 땅' 등의 운영 정보를 볼 수 있다.

생활정보 안내 사이트 외에도 비짓부산에서 부산관광 정보를, 부산문화포털 다봄에서 다양한 공연·전시 정보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구·군별 추석 연휴 쓰레기 수거 일정과 명절에 많이 발생하는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청결한 설 연휴를 만들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설 연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올해에는 시민 여러분 모두 복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한다"라며, "설 연휴에 유용한 정보가 담긴 이번 '생활정보 안내 사이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팔달신시장에서 설맞이 장보기 행사 가져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이해 2월 6일 오후 북구에 위치한 팔달신시장을 방문했다.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견어물, 떡, 과일 등을 직접 구매하며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장보기에 나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서민경제의 터전인 전통시장이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인 상인들

에게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들도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청송군, '설명절 종합대책' 추진

##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청송군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과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설 연휴기간인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분야별 상황관리를 위해 8개반 110명의 인원을 편성하여 각종 비상·응급상황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설 종합대책은 △안전하고 든든한 명절,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명절, △편안하고 안락한 명절, △풍요롭고 넉넉한 명절 4대 대책 10대 중점과제로 수립됐다.

이번 설 연휴기간에는 '8282 민원처리 기동반' 운영을 통해 빈틈없는 군민 생활편의 대책을 마련했으며, 많은 귀성객과 관광객이 전국적으로 이동할 것을 대비하여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또한 대설·한파 등 비상상황에 따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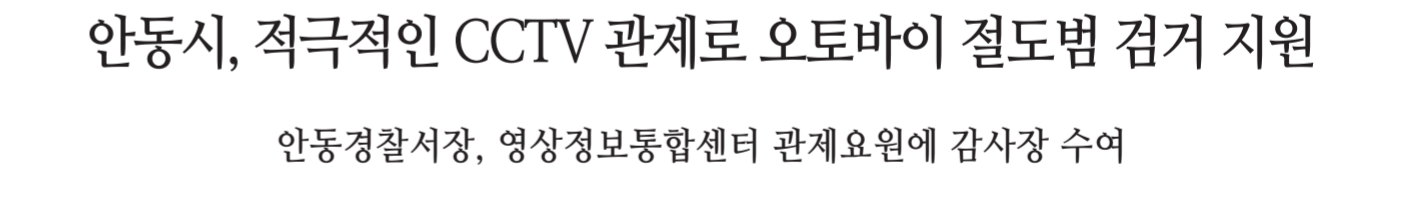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시설 점검을 통해 군민들이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예방 추진대책을 마련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설 연휴기간 동안 군민들이 생활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종 안전사고와 재해·재난 예방을 통해 지역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안동시, 적극적인 CCTV 관제로 오토바이 절도범 검거 지원

## 안동경찰서장, 영상정보통합센터 관제요원에 감사장 수여



안동시영상정보통합센터에 근무하는 관제요원 A씨는 적극적인 CCTV 관제로 오토바이 절도범을 발견하고, 112 신고 및 정확한 이동 방향을 제공하여 범인을 검거한 공을 인정받아 안동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는다.

2월 1일(목) 04:59경 관제요원 A씨는 평소와 같이 CCTV를 지켜보던 중 거동이 수상한 사람 3명이 주택가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이리저리 살피는 모습을 발견하여 이를 예의주시했다.

05:04경 근처의 다른 오토바이에도 관심을 보이더니 시동을 켜 채 타고 가는 것을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 및 정확한 이동 방향을 제공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도착하여 신속하게 검거했다.

한편, 안동시영상정보통합센터는 작년까지 길 잃은 노인을 경찰에게 알려 가족의 품으로 인계했고, 상습 절도범 등을 경찰과 공조 및 실시간 협조하여 검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안동시영상정보통합센터는 시민의

생활안전 유지와 범죄예방을 위해, 총 3,546대의 CCTV를 20명의 관제요원이 4조 3교대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안동시 구축구역을 실시간으로 영상 관제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동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영양군, 2024년 설 맞이 환경대청결 활동 실시

영양군은 다가오는 설을 맞이하여 귀성객들과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설 명절 분위기를 제공하고자 2024년 설 맞이 환경대청결활동을 2024년 2월 7일 실시했다.

이날 대청결 활동은 '2024년 설연휴 쓰레기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영양읍 시가지 및 이면도로, 하천변 등을 중심으로 영양군청 직원 약 180여 명이 참여하여 관내 전 지역의 대청결활동을 실시하여 생활폐기물 약 2톤 정도를 수거했다.

영양군은 설 연휴기간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설 및

이 환경대청결활동 실시, 연휴기간 원활한 쓰레기 수거처리체계 구축, 폐비닐 집하장 등 보관 폐비닐 적정 처리, 명절 생활쓰레기 감량화 홍보 등 유도, 명절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줄이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쓰레기 관리상황실 설치 및 자동소반 운영 등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명절 생활쓰레기 감량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환경정화활동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강조하며, "이번 설맞이 대청결활동을 통해 민중 고

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 설맞이 장보기와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위문품을 전달하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일 지역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지역재래 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부지소장을 비롯한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설날 제수용품과 성수품 등을 은누리 상품권으로 구매하고,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에 따른 지역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상주시 낙동면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상주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풍요롭고 따뜻한 설명절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위문품을 전달하고 소외될 수 있는 이웃과 온정을 나누었다

서부지소는 매년 명절마다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 전달을 이어오고 있다.

김정화 서부지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민들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지속적으로 나눔 봉사과 이웃사랑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매년 지역 소외계층 방문을 통해 이웃사랑 나눔 실천



윤근수/기자

# 포항시, 의대정원 확대 환영...포스텍 의과대학 신설 반드시 이뤄낼 것

###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에 따른 포항시 입장 표명

포항시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와 관련해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거점 의대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을 비수도권의 기존 의과대학 중심으로 집중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포항시는 정부가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벼랑 끝 위기에 놓인 지방 의료 개선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과감하게 확대한 것에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의대 정원 확대가 지방 의료 붕괴를 막을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과대학 신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없이 추후 논의하기로 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며, 근본적인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 거점 의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이로 인한 지

방소멸 위기는 특정 지방정부의 문제가 아니며, 그중에서도 열악한 지역 의료 현실은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어 의료 취약지로 손꼽히는 경북은 의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다.

특히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포스텍과 같은 세계적인 연구 역량을 갖춘 대학에 의대를 신설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의과대학으로 성장시켜야 하며, 이를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의사 과학자 양성은 시대적 과제다.

또한 포스텍 의대와 연계 추진하는 스마트병원도 지역 거점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수행해 수도권에 집중된 환자 풀림 현상을 완화시켜 수도권과 지방의 심각한 의료 불균형을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정부가 지방의 대 신설을 지속 검토한다고 밝힌 만큼 우리는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경상북도, 포스텍과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정부를 설득,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윤태용/기자

# 경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설 명절 맞이 사랑의 쌀 기탁

경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경사모'(대표 박병철)는 설 명절을 맞이해 지난 6일 관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경주시 주민건강지원센터에 쌀 400kg(10kg/40포)을 기탁했다.

경사모는 2005년부터 20년 가까이 사랑의 쌀을 후원하고 태풍 이재민에게 의연품을 전달하는 등 매년 관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아

끼없는 후원을 하고 있다.

또한 '국가문화탐방! 신라의 달밤 165리 걷기대회' 등 건강관련 체험 행사를 주관하고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경주 지역 발전 및 홍보에 기여하고 있다.

서강 지역보건과장은 "힘든 시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항상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경사모에 깊이 감사드리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박병철 대표는 "올해도 설날을 맞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쌀을 기탁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다양한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윤태용/기자



윤태용/기자

# 봉화군,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내 성수 식품 특별 점검 실시

### 소비자가 안전한 먹거리 구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 나서



봉화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8일까지 4주간 관내 전통시장 2개소 내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자가 안전한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설 명절을 대비해 귀성객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위생법상 위법 사항을 선제적으로 예방

하기 위해 제수용·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봉화군청 종합민원실 식품위생팀 3명을 점검반으로 편성해 소비기반한 위·변조 또는 경과 제품 조리·진열 판매지도 △업소 내 위생관리 실태의 적절성 점검 △건강 관련 식품류 허위·과대광고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했다.

윤근수/기자

박현국 봉화군수는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 설날이 다가옴에 따라 귀성객들의 많은 방문이 예상된다"며 "설 명절을 대비해 전통시장 내 성수 식품을 특별점검해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봉화군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마련해 나갈 것이며 봉화군을 찾는 귀성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 예천군, 설 연휴 당직 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운영

### 연휴기간 응급환자 발생 대비 응급진료서비스 제공

예천군은 설 연휴 기간 중 관내 병의원 과 약국 중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을 운영해 응급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은 주민과 귀성객들이 연휴기간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예천권병원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소에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예천소방서와 연계해 진료 가능 의료기관과 약국을 신속히 안내하는 등 긴급 지원 태세를 갖추었다.

윤근수/기자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은 군 홈페이지와 보건소·지소·진료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병·의원, 약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남기 보건소장은 "설 연휴 기간 중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지정 운영으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민과 귀성객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구분	의료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진료과목			
				2. 9.(목)	2. 10.(금)	2. 11.(토)	2. 12.(일)
병	예천종합병원	예천읍	854-8811	응급실	응급실	응급실	응급실
	계림의원	예천읍	852-2389	응급실	응급실	응급실	응급실
	인성의원	예천읍	854-7418	응급실	응급실	응급실	응급실
	예천종합병원(예천읍점)	예천읍	855-1275	응급실	응급실	응급실	응급실
약	안남약국	예천읍	854-2223	응급실	응급실	응급실	응급실
	소백산약국	예천읍	854-1055	응급실	응급실	응급실	응급실
	홍천약국	예천읍	855-3357	응급실	응급실	응급실	응급실
	수일동주부약국	예천읍	854-0910	응급실	응급실	응급실	응급실
	후포약국	예천읍	853-8282	응급실	응급실	응급실	응급실
	황룡약국	예천읍	854-8802	응급실	응급실	응급실	응급실
	상신약국	예천읍	854-8839	응급실	응급실	응급실	응급실
	황룡약국	호명면	822-7700	응급실	응급실	응급실	응급실
	포항포항1약국	호명면	808-7117	응급실	응급실	응급실	응급실
	홍이약국	홍명면	853-8787	응급실	응급실	응급실	응급실

# 영주시, '전통시장 활력' 장보기 행사 개최

### 박남서 시장, 7일 공설시장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독려



영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력' 장보기 행사로 지역상권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번 장보기 행사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시 공무원과 유관기관 및 단체, 기업체가 동참해 시장별, 시간대별, 부서별로 분산·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제수용품과 성수품 등을 구매하며 위축된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7일 공설시장 등 관내 시장을 찾아 장을 보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응원하고 떡, 사과, 견과류, 약과 등을 영주사랑상품권을 사용해 구입했다.

한편 시는 이번 설맞이 장보기 행사와 연계해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을 위한 물가안정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 2월 12일까지를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안정 대책반을 중심으로 가격표시제·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담합에 의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중이다.

박남서 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좋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곧 지역 경제활성화로 이어지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에서 설 명절을 준비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천년의 맛, 모두의 맛' 영덕대게축제 임박

### 2월 29일부터 4일간, 오감만족 축제가 펼쳐진다!

동해안 최고의 겨울 축제 영덕대게축제의 개막이 임박했다! 오는 2월 29일부터 나흘간 강구 삼사해상공원에서 제27회 영덕대게축제가 펼쳐진다.

'천년의 맛, 모두의 맛'이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영덕대게축제는 축제장을 방문하는 누구나 영덕대게를 맛보고 색다른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오감만족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우선 영덕대게 맛 체험을 대표 프로그램으로 격상시켰다.

올해 축제에서 영덕군은 CJ그룹의 계열사인 CJ엠디원(식품머천다이징, 판촉 부문)과 협업을 통해 CJ엠디원 소속 셰프들이 영덕대게를 주재료로 참신한 레시피를 개발하고 현장 시식회도 연다.

CJ엠디원에서는 내부 시연회에서 선정된 3종 이상의 영덕대게 펌퍼프드를 축제 기간 내내 매일 600인분 이상 관람객에게 제공하면서 실제 상품화 가능성까지 타진하게 된다.

또 기존 축제에서 불편함을 컸던 즉석 대게찜 부스는 찜기를 3배 이상 늘려 이용객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편의성을 높였고 지역 대표 먹거리와 특산물 판매 부스도 그대로 선보인다.

체험 프로그램도 더 풍성해졌다.

축제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영덕대게낚시와 대게신고달리기는 프로그램 운영 횟수를 대폭 늘렸다.

가장 인기 있는 대게낚시 체험장은 2배 이상 확장했고, 어린이 낚시 체험장도 별도로 운영한다.

2022년 지역 고유성을 인정받아 특허 등록까지 마친 영덕대게줄당기기는 축제 방문객 누구나 즉석에서 참여가 가능해졌다.

영덕대게탈축구는 어린이도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미니축구 체험 이벤트를 더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

새로운 야심작으로, 축제와 영덕 관광지를 같이 체험한 관광객에게 선착순으로 기념품을 제공하는 스탬프투어를 운영하고 영덕대게를 들고 촬영한 사진으로 추억도 남기고 푸짐한 경품도 받을 수 있는 '영덕대게 사진 콘테스트'도

개최한다.

2024년 영덕대게축제는 2월 29일 목요일 차유 대게원조마을(축산면 경정2리) 안전 기원제와 영덕군 9개 읍면 풍물단과 대게 상가가 참여하는 강구대게거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3월 3일까지 4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영덕대게축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영덕대게축제 날짜가 다가오면서 하루 하루를 긴장 속에 보내고 있다"며 "프로그램 확정, 참여자 모집 및 선정, 장소 배치까지 착착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안심하지 않고 어느 때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또 "전국 각지에서 찾아올 손님들이 영덕대게에 반하고 영덕군 만의 매력에 빠져서 다시 찾아오게끔 빈틈없이 챙기고 있다. 모쪼록 2월 연휴에는 영덕대게축제에 오셔서 영덕의 참맛을 만끽하고 가셨으면 한다."는 바람도 덧붙였다.

장문화/기자



제27회 영덕대게축제  
2월 29일 ~ 3월 3일  
강구 삼사해상공원



# 경상북도보훈단체협의회, 예천군 충혼탑 합동참배

##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 기려

경상북도 보훈단체협의회는 6일 오전 남산공원 내 예천군 충혼탑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합동 참배를 거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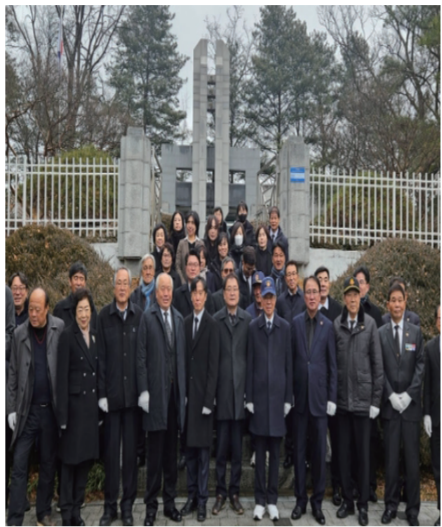
이날 참배에는 김성대 경상북도 보훈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해 이규삼 예천 부군수, 이용수 경북북부보훈지청장, 동기욱 경북도의원, 경북·예천 보훈 단체장 및 임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묵념 등의 순으로 경건하게 진행됐다.

이규삼 예천군 부군수는 "나라와 겨

레를 위해 신명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함께 기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나라를 지켜왔다는 자긍심과 보람 속에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복지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 보훈단체협의회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21년부터 경북 내 22개 시·군을 매월 순회하며 합동 참배를 시행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 영양군 설맞이 소외계층 위문 활발

## 취약계층, 보훈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방문 위문품 전달

영양군은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2월 7일(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을 통해 관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에 300만 원 상당의 음료세트 및 생활용품 전달했으며, 시설입소자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종사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여 따뜻한 나눔문화 및 명절 분위기 확산에 기여했다.

영양군은 사회복지시설 위문 외에도 국가보훈대상자와 저소득가정 등에 1가구당 10만원씩 700세대에 명절 위

문품을 전달하고,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으로 마련한 위문금을 361세대에 전달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역주민 모두가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뜻깊은 설 명절이 되길 기원하며,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개최

## 2.7. 14:00 부산시도호텔에서 3번째 회의 개최... 6개 안건 심의·의결 및 의견 청취 예정

부산시는 7일 오후 2시 부산시도호텔에서 '2024년 제3회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가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하여 주요 정책들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도덕회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지난해에 수립한 '부산광역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최종 실행계획인 '2024년도 부산광역시 지방시대 실행계획(안)'과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초석이 될 '2024년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실행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2024년도 부산광역시 지방시대 실행계획(안)'에는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기반 구축을 위해 지

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등 5대 전략, 21대 핵심과제, 215개 세부 추진과제가 담겨있다.

이와 함께, 올해 '부울경 초광역권발전 실행계획(안)'에는 주력 산업육성, 광역 철도망 구축, 문화 관광 등 부울경의 발전 방안이 포함된다.

또한,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지역 선정 공고를 위한 운영기획서(안)에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 정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 우리 시와 교육청의 공동 추진사업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변경(안) ▲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변경계획(안) ▲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실증특례 종료(안)에 대하여 의견 청취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추진 과제들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하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수립에 온 힘을

쏟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는 작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의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더불어 시도별 구성·운영하는 법정 위원회로, 지난해 "부산 먼저 미래로"라는 비전으로 출범하여 지방시대 주요 정책의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희태/기자



# 2024 울진 금강송 춘계 중등U15 축구대회 성료

울진군은 지난 1월 23일부터 5일까지 울진군 일원에서 개최된 2024 울진 금강송 춘계 중등U15 축구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대한축구협회(KFA)가 주최하고 경상북도축구협회와 울진군축구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08개 팀(고학년 71개 팀, 저학년 37개 팀) 3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평소 같고 다투는 실력을 발휘해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쳤다.

울진종합운동장 등 7개 구장에서 조별 리그전을 거쳐 본선 토너먼트로 진행됐으며, 매화 리그에서는 울산현대 U15현대중, 송이 그룹에서는 경기통진 FCU15, 대계 그룹에서는 인천FC현우 U15, 유스컵 그룹에서는 대구FCU15 울원중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의 마지막 날에는 갑작스러운 비바람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울진군이 경기장에 장비와 인력을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경기 중단없이 대회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다.



산연연구원 서비스(예술·스포츠·여가) 기준에 따르면,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선수단 및 관계자들에게 주요 관광지 홍보권을 배부해 지역 내 주요 관광지 홍보에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대회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지원해준 협회 및 관계자들과 친절한 미소로 선수들을 반겨준 군민들 덕분"이라며 "대회 기간 동안 울진군을 찾아주시는 선수단 및 관계자 여러분과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향후 대회에도 다시 울진군을 방문하여 대회를 함께 즐겨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 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모사업 15억원 확보

## 농식품부 1차 서면심사, 2차 발표평가 거쳐 최종선정

문경시는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총사업비 15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은 문경시 시책사업으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부족한 농촌 고용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는 영순면 말들리 구)영창분교에 수용 인원 60명 규모로 2개동(남·여 기숙사 2동, 커뮤니티 시설 1동)이 2026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문경시 농업인들이 농촌 고령화, 외국인 근로자 입국인원 제한 등으로 인한 인력난과 가파른 임금 인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선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수급 문제 해결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문경시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022년 베트남(라이퍼우성)과 MOU를 체결하고, 올해 안으로 결혼이민자 초청을 포함하여 연간 외국인 근로자 450명을 초청해 농촌 인력난을 해소할 예정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으



로 문경시 농업인들의 최우선 과제인 농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라며 "농업인들이 인력 걱정 없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힘을 쏟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 '(가칭)대구판 CES' 추진에 지역 신산업 역량 총 결집!

## 조직위 첫 kick-off 회의, 미래 신산업 주요 기관장 모여 머리 맞대

대구광역시는 2월 6일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지역 산학연 대표자들과 미래 50년을 주도할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대구판 CES 행사 추진 세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관련 실·국·과장과 지역 산업구조 개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ABB·반도체·모빌리티·로봇·헬스케어 분야 관계기관장을 포함해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진행은 엑스코 김규식 사업본부장의 '대구판 CES 추진계획(안)에 대한 발표에 이어 정장수 경제부시장 주재로 △대구판의 정체성을 담은 행사 브랜드 확립 △분야별 선도기업 발굴 및 모집 △국내외의 참관객 유입을 위한 전략적 홍보 △글로벌 행사로 발전하기 위

한 MICE 등 신규 프로그램 운영 △산업별 전시 통합 운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 등 대구광역시와 지원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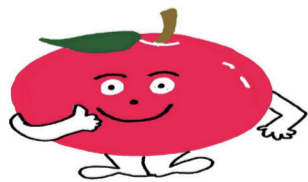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대구가 추진 중인 신산업 정책이 초기 전자·가전 중심 전시회에서 모빌리티·AI·로봇 등 첨단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행사로 거듭난 CES와 같은 행사를 준비하기에 최적의 산업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DIFA) 등 관련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살려 대구 5대 신산업 중심의 전문 전시회를 육성해 나가는 데 다같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이날 회의에서 도출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들을 수렴해 올해 10월경 개최를 목표로 조만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실·국·장,

기관장이 참여하는 정기 회의를 비롯해 수시 실무회의를 통해 분야별 선도기업 모집 등 치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5대 미래 신산업 전반을 보여줄 대구판 CES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기술 공유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산학연과 힘을 합쳐 대구시가 가진 정책적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농가맛집 무꾸, 청송군에 이웃돕기 성금 기부

청송군 부남면 소재 농가맛집 무꾸는 지난 5일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청송군에 기부했다.

박찬목 대표는 "前 양속2리 이장으로 마을의 크고 작은일이 있을 때 마다 솔선수범으로 활동하며 마을 내 귀감이 됐다.

박찬목, 김경희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나눔에 감사드리며 보내주시는 성금은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산시는 6일 경산시청 별관2 회의실에서 2024년 경산시 SNS 홍보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을 통해 블로그 기자단 5명, SNS 서포터즈 15명 등 2개 분야 20명으로 선발된 경산시 SNS 홍보단에 위촉장을 전달한 후 홍보단 활동 가이드 교육을 했다. 특히, 소통나무에 메시지 달기 행사를 통해 경산시 SNS 홍보단이 경산시와 시민과의 소통에 뿌리 같은 역할과 영향분 같은 역할을 해 무한히 뻗어나가는 상상 그 이상의 경산이 될길 바라는 바람을 담았다.

이날 위촉된 20명의 경산시 SNS 홍보단원들은 경산시는 물론 대구, 경북, 서울 등 전국 각지의 유명 인물루어선들로, SNS 활동이 능숙한 대학생, 직장인, 주부, 프리랜서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군과 20대~60대에 이르는 폭넓은 연령층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경산의 다양하고 유익한 소식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홍보와 소통 도우미 역할을 담당한다.

오는 12월까지 활동하는 경산시 SNS 홍보단은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

## 경산시 SNS 홍보단 발대식 개최



디어와 소재로 콘텐츠 제작에 직접 참여해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경산시 SNS 채널을 통해 게시하며, 생생하고 다양한 경산의 모습들을 시민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조현일 시장은 "소셜미디어로 대표되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변화하는 트랜

드를 발 빠르게 잡을 수 있는 홍보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에서 듣기 위한 새로운 소통 창구로 시와 시민을 잇는 소중한 징검다리다"며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경산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송광삼/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 설 앞두고 민생 물가현장 살펴

## 박 시장, 6일 광명전통시장 찾아 물가안정 및 착한가격업소 캠페인

박승원 광명시장은 설 명절 연휴를 앞둔 지난 6일 오후 광명전통시장을 방문해 민생 물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 박 시장은 이날 장바구니를 들고 지역화폐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직접 물건을 구매하며 명절 물가를 살피고 지역 상인을 격려했다. 박 시장은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감소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하고 "시민들이 풍성한 설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바란다"며 물가안정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광명시는 물가안정을 위해 설 명절

이전 3주간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일에는 광명전통시장에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관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16개 명절 성수품에 대하여 물가 변동 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다. 식품 안전을 위한 판매·제조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도 병행하고 있으며, 광명전통시장 등 원산지 표시 및 가격표 시제를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계도·시정 조치했다. 또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일반음식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 14개소를 점검했다. 한편, 광명시는 개인서비스업 분야의 물가안정을 위해 38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 발굴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 롯데, 삼성카드 등 국내 9개 사 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하면 2천 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권동일/기자



# 구미시,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 마련

## 지역 내 갈등해소 및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구미시는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의 난립을 제한하기 위해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돼 2월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자원순환관련시설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고물상일 경우 적용되며,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재활용업 및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신고가 적용대상이다. 건축물 용도변경을 포함해 △5호 이상 가구 밀집 지역, 학교, 어린이집, 의료기관, 관광지, 문화재, 전통 사찰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 △하천, 소하천, 다중이용시설, 도로, 철도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저수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등에 입지를 할 경우 거리 제한을 적용한다. 구미시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주거지역과 인접해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의 66%가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거리 제한을 도입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정주 여건 개선 등 공황 배후도시로의 도약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중호 구미시장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강화해 지속해서 환경문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동현/기자

# 신혼부부 주택이자, 청년 이사비 지원까지... 안양시, 젊은층 주거복지에 '총력'

## 최대호 시장 "어느 세대보다 치열하게 사는 청년들...미래 준비의 디딤돌"

안양시가 지속적인 젊은 층의 유입을 위해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달부터 청년 주거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사업 접수가 시작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올해도 청년들의 주거 환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청년 전·월세 보증금 ▲청년가구 이사비 ▲청년 월세 등 다양한 지원으로 청년 주거복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먼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를 현재 모집 중이다. 신청 자격은 안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 신규 대출을 추천하고, 신규 대출 실행 시 연 2%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지난달 16일부터 모집 중으로, 오는 4월 30일 접수 마감된다. ○ 청년 뿐 아니라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도 다음달 중 모집한다. 주택가격 상승과 대출이자 증가로 인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해왔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총 675세대의 신혼부부에게 6억5,000

여만원을 지원해 예산을 거의 소진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시는 올해 모집 공고를 이달 16일경 게재할 예정이다.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2022년 기준)인 금융권 대출 세대로, 7년 이내(2017년~2023년)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득자가 만 49세 이하인 세대다. 주택 면적이나 가격 기준은 없다.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매입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00만원까지 연 1회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월세 지원은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 안양에 사는 청년이라면 올해부터 이사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청년 가구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타 시에서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안양시 내에서 이사한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19~39세)이다. 임차보증금 또는 월세 등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이사비 또는 중개보수비에 들어간 실비를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혜택은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달 13일경 게시 예정인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 시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구에 건립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매입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1차로 공급하는 덕현지구 청년임대주택(평촌센텀퍼스트)의 경우 지난 2일 접수마감된 우선공급 모집에서 105세대 모집에 총 2,588건이 접수돼 24.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 하반기에는 비산초교주변지구 청년임대주택(평촌엘프라우드) 133세대를 모집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청년 주거공급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 이 밖에 '청년 월세 지원'도 인기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을 통해 안양에 사는 19~34세의 청년 499명에게 총 7억6,000만원이 지급됐으며, 이에 더해 안양 청년월세 지원으로 35~39세의 청년 18명에도 2,600만원이 지급됐다. 신청자 1인당 평균 약 152만원의 월세 부담을 덜게 된 셈이다. 올해 국토부의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은 이달 말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금 청년들은 어느 세대보다 치열하게 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총출동해 청년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 목포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 추진

## 전통시장의 수산물 소매업체 대상 원산지 표시 동참 적극 홍보

목포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주요 수산물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에 나섰다. 지난 6일, 목포시는 전라남도, 서해어업관리단, 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과 함께 전통시장 내 수산물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를 통해 안심 구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목포시는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등을 점검했으며, 특히 지난 7월부터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으로 확대·시행된

5개 품목(가리비·방어·우렁쉥이·부세·전복)에 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합동 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기 의무 및 방법에 대한 안내하고,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중배/기자



#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 길

청담리 숲길, 이천리 숲길, 영양읍 오솔길, 영양읍 오솔길, 영양읍 오솔길

### 물

영양읍 오솔길, 영양읍 오솔길, 영양읍 오솔길

### 얼

시냇물의 대가, 영양읍 오솔길, 영양읍 오솔길

### 맛

시냇물의 대가, 영양읍 오솔길, 영양읍 오솔길

# 숨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박사추념지

# 빛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 심

자연과 벗하던 시비의 영양읍 오솔길

#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허계곡, 분신계곡, 침백공원, 축백수림, 외씨버섯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 2024 강원도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 지원 공모 신청·접수 시작

## 2월 23일까지 3개 분야(예비·초기, 창업도약, 첨단기술 선도) 신청 가능

강원특별자치도는 바이오농업 신소재 개발과 원재료를 생산하여 기업이 제품화 할 수 있도록 바이오 소재산업과 농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2024년 강원도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 지원」 사업을 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23일간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본 사업은 도내 그린바이오(친환경생명공학) 기업 및 첨단기술 선도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50~200백만원을 지원하여 사업화자금, 기업 컨설팅, 기술고도화 자금 등 확대(스케일업)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에서는 2월 1일부터 23일까지 23일간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그린바이오(친환경 생명공학) 분야의 신청을 받은 후, 3월 초 전문가 심사

위원 평가를 거쳐 유형별(예비·초기창업, 창업도약기업, 첨단기술 선도기업) 3~9개 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분야는 ▲예비·초기창업 ▲창업도약 기업 ▲첨단기술기업 3분야로 신청 기업은 기업 소재지의 시장·군수 추천서를 받아 도 농정과 그린바이오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장·군수 추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도정마당 →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원특별자치도 박형철 농정과장은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지원 사업



을 통해 바이오 소재산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농가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바란다"고 전했다.

이동원/기자

# 아산시, 축산 2세대 육성 '스마트 축산시설 지원' 시범사업

## [미리보는 갑진년 아산시정 경제·교통 분야]

### 수도권 통학통근 지원, 농기계 수리부품대금 지원 신규 추진

아산시가 2024년 새해 달라지는 시책·제도 61건을 발표한 가운데, '경제·교통' 분야에서는 실생활에 밀접한 신규 정책들과 후계 축산인 및 소규모 농가를 위한 시책이 눈길을 끈다.

먼저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9,860원이 적용된다. 이는 2023년(9,620원) 대비 240원(2.5%) 인상된 금액이다. 시는 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48개 사업에 150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보다 41억 원 증가한 수치다. 기초연금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단독가구(월 32만 3,180원 → 33만 4,810원), 부부가구(월 51만 7,080원 → 53만 5,680원) 각각 인상됐다.

이와 함께 시는 수도권으로 통학·통근하는 시민에게 철도승차권 교통비의 25%를 지원한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서울·경기 정기승차권을 이용하는 통학생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시민이 대상이다.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연 100만 원이 한도다.

또 대기관리구역법 개정에 따라 올 1월부터 택배 화물자동차의 신규 등록 및 증차, 대·폐차 시 경유 차량 등록이 제한된다.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고 친

환경차를 보급해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다만, 오는 6월까지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다. 해당 경유차량을 12월까지 전기·가스(LPG) 자동차 등으로 전환하는 조건이다.

특히 시는 농업 분야에서 축산 2세대의 발전 토대 마련을 위해 '스마트 축산시설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해 열린간담회에서 제기된 젊은 후계 축산농가들의 건의를 반영한 것.

후계 축산인(50세 이하 창업, 승계, 귀농한 자) 농가 5곳을 우선 선정해 2억 원(시비50%, 자부담 50%)을 지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등 최신 스마트 기술로 축사 내부 시설과 장비를 개선한다.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수리부품대금 지원사업도 새로 시행한다. 시비를 활용한 충청권 유일 특수시책으로, 농가당 5기종, 40만 원을 지급한다. 농협에 등록된 농기계를 지정된 21개 수리점에서 수리한 뒤 확인서를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외에도 소규모 농어업인 직불금 단가가 130만 원(기존 120만 원)으로 상승했고, 농촌지역에 방치된 노후 빈집 정비를 위한 빈집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보조금이(300만 원 → 400만 원) 인상됐다.

김원호/기자

# 충남도, 대한민국 경제산업수도 '베이벨리'

## 도, 베이벨리 비전 선포...미래 공유하고 성공적인 건설 추진 다짐

충남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산업지도를 그리기 위한 대장정에 본격 돌입했다.

아산만 일대 베이벨리 건설을 위해 2050년까지 33조 원을 투입해 20개 핵심 사업을 추진, 2020년 기준 세계 55위 국가 수준의 지역내총생산(GDP)을 30위 규모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대한민국 신경제지도를 그리다'

도는 7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베이벨리 비전 선포식 '베이벨리, 대한민국 신경제지도를 그리다' 행사를 개최하고, 베이벨리 비전을 220만 도민에게 보고하며 성공적인 건설 추진을 다짐했다.

김태홍 지사와 조길연 도의회 의장, 박상돈 천안시장, 박경귀 아산시장, 이완섭 서산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기업대표, 대학 총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행사는 김 지사의 비전 선포, 도민과의 대화, 기념의식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베이벨리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을 육성하는 초광역·초대형 사업이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주도 국가 균형발전 실현, 아산만권 경제 성장을 통한 국가 경제 성장 견인,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 초광역 협력 성공 모델 마련 등을 위해 민선8기 협선충남 '1호

과제'로 추진 중이다.

4개 분야 10개 프로젝트 목표

김 지사가 이날 발표한 비전은 '대한민국 경제산업수도 베이벨리'로, 산업·인재·정주·SOC 등 4개 분야 10개 프로젝트를 목표로 잡고 있다.

10개 프로젝트는 베이벨리 메가클러스터 조성,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지·산·학·연 R&D 혁신 생태계 구축,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 전진기지 시범 조성, 지속가능한 외국인 직접 투자 기반 조성, 글로벌 우수인력 유치 기반 구축, 친환경 직교류 교통망 구축, 베이벨리 케이-스페이스(K-SPACE) 조성, 베이벨리 초광역 교통망 구축, 메가시티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이다.

핵심 사업으로는 베이벨리 탄소중립 산업벨트 구축, 이코노믹 시큐리티 센터 조성, 반도체-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 바이오·신소재산업 육성, 지·산·학·연 R&D 혁신 역량 강화, 기업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 도입,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충남 경제자유구역 개발, 베이벨리 개발청 설립, 선진 이민제도 기반 조성 등을 내놨다.

또 한국형 국제교육도시 조성 한-중 초국경 고속교통 구상, 중부권 특화항공사 조성(서산공항), 글로벌 복합항만 조성, 케이-스페이스 개발, 베이벨리 순환 고속도로 건설, 베이벨리 순환 철도 건설, 케이-골드코스트 조성, 지속가능한 생태 환경 조성, 베이벨리 생

활 지원 인프라 확충 등도 핵심 사업으로 발표했다.

이를 위해 투입하게 될 사업비는 2050년까지 32조 8000억 원이다.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 만든다

김태홍 지사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며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수도권 쏠림 현상과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아산만권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라며 "충남 천안·아산·서산·당진, 경기 화성·평택·안성·오산이 함께 해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대한민국의 베이벨리 메가시티를 건설하겠다.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천안·아산에 반도체 후공정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도 반드시 유치하겠으며, 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 등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산업을 선도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충남 4개 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또 "수소특화단지를 신규로 지정해 당진수소도시와 연계한 수소에너지 융복합산업벨트를 구축하는 한편, 해외 의존률이 높은 리튬, 니켈, 망간 등 10대 핵심 광물 전용기지를 서해안권에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천안·아산·서산·당진 4개 시에 충남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한편, 전례없는 규제 혁신과 맞춤형 지원책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이끌고, 대한민국 최초로 기업 지역 인재 채용 목표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청년들이 베이벨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만 명 규모 핵심거점도시 건설

이밖에 기업, 대학, 국제교육, 스마트 도시 기능이 결합된 10만 명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해 베이벨리 핵심거점도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는 베이벨리 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해 충남도와 경기도의 경계를 허무는 교통 접근성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지사는 "베이벨리는 2050년 기준 세계 경제 규모 30위, 외자유치 22억 달러, 권역 내 50분 생활권으로 충남의 경제지도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지도가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민선8기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베이벨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계획을 1호 과제로 정한 뒤, 같은 해 9월 경기도와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민관 합동추진단과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지난해 2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아산만 일원 GDP 204조 원

또 지난해 3월 김태홍 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하고, 4월에는 도와 시군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시군별 사업 발굴 회의, 연구용역 보고회, 전문가 워크숍, 경기도와의 공동워크숍 등을 진행, 이번 비전과 목표, 핵심 과제 등을 마련했다.

최정근/기자



설 선물은 자연과 농부의 진심을 담은  
**봉화장터에서!**



<http://Bmall.go.kr>

특산물을 구입하려면 인터넷에서 '봉화장터'를 검색하시거나 위의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서울시, 지난 3년간 설 연휴 화재 167건... 설 전(前)아파트·전통시장 화재 예방 총력

## ‘주거시설’ 화재가 46.7%로 가장 많고, 화재원인은 52.7%가 ‘부주의’

최근 3년간 설 연휴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67건으로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47건, 2022년 49건, 2023년 71건이었다.

장소별로는 공동·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이 78건(46.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쓰레기에서 발생한 화재(32건), 음식점 화재(12건) 순이었다. 발생 원인은 부주의에 의한 것이 절반에 이르는 88건(52.7%)이고, 두 번째가 전기적 요인(44건, 26.3%)이었다.

서울시는 올해 설 연휴에는 이같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통시장, 대형마트, 운수시설, 주거시설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대책 실행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화재 및 각종 재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 연휴 전날인 2월 8일 18시부터 2월 13일 9시까지 설 명절 대비 ‘특별경계근무’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설 성수품 구매를 위해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서울시내 108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안전조사를 비롯해 안전상담과 상인회 중심의 자율안전점검을 집중 실시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29일부터는 서울시내 관할 소방서별 의용소방대원이 매일 저녁,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순찰도 돌고 있다.

주요 터미널 등 운수시설과 대형판매시설, 지하상가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등 특별 안전관리도 나간다. 소방공무원 50명으로 구성된 25개 특별단속반이 설 연휴 전까지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가스충전소를 포함한 1,783개 가스시설에 대한 자치구·소방·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자체 안전점검도 시행된다.

화재 발생이 가장 많은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대책도 가동한다. 먼저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나면 살피서 대피하기’와 ‘화재 시 문 닫고 대피하기’ 등 피난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화재피난행동 요령에 대한 정기적인 안내 방송도 요청한다.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무조건적 ‘대피’보다는 장소와 불길·연기 영향 등 대피 여건을 판단해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고, 화재 시 방화문 이 제대로 닫지 않을 경우 아파트 피난계단을 통해 연기와 불길이 상층으로 빠르게 확산하게 되므로 반드시 현관문과 방화문을 닫고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

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중 화재 발생 세대가 현관문을 열어 놓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인명피해가 6.7배 높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쪽방촌,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화재취약 주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반은 별도로 편성해 화재안전 상담과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화재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또 설 연휴 기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주택화재 안전봉사단’도 운영해 홀몸 어르신 등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주변상황을 살핀다.

황기석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들이 설 연휴를 안심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여주시, 현장에서 함께하는 새해 주요역점 업무 보고 및 토론회

농업경쟁력 제고 및 도시계획, 도시 개발 분야

여주시가 현장에서의 답을 찾고자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주요역점 업무보고 및 토론회 2일차와 3일차가 지난 5일과 6일 농업기술센터와, 도시재생센터에서 열렸다.

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보고 및 토론회에서는 이충우 시장이 두시간 동안 직접 참여해 여주시 농업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우선 여주시 농업 공동브랜드 센터 설치 장소 및 시기 등에 대한 토론을 시작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방안, ▲품목별 형평성 있는 연구회 지원방안, ▲고품질 여주쌀 품질관리를 위한 로드맵 구축 등 농업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전반적인 숨겨진 문제점들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 했으며

남한강 용수를 갖고 있는 이점에도 그 동안 재정 여건으로 상수도공급이 저조하여 시민들의 정수 여건 부담이 많았던 부분을 해결하고자 정수장 및 배수지 증설사업을 부족함이 없이 확충 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6일 도시재생센터에서 부시장(부시장 조정아)주재로 진행했던 도시개발 및 기업유치 분야에서는 ▲기업투자유치 방안 ▲산업단지 조성 계획 ▲경강선 강천역 유치 방안 ▲GTX D노선 구축 대비 교통망 확충 계획 ▲역세권 및 균형있는 도시개발에 대해 부서간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 했다.

기업유치방안에 있어서는 수도권내에서 비교적 저렴한 지가를 보유한 점과 남한강 공업용수가 풍부한 이점, 문화관광자원이 많은 여주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의견을 나눴으며 역세권 개발과 도시개발 사업은 획일적 개발이 아닌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전체적인 여주를 담을 수 있는 균형적인 도시컨셉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수도권 최고의 자연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강천섬내 캠핑장 조성과 연계하여 강천역 유치가 절실하다는 의견을 공유 했고 GTX D노선이 확정 발 표됨에 따라 경강선 전철 및 광역 교통망과 연계한 여주시의 편리한 교통망 확충방안도 미리 선점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3일간 분야별 주제를 묶어서 진행한 보고 및 토론회에 대한 의견으로 대다수가 참신하다는 의견과 좀더 확대하여 많은 새내기 공무원이 참여하면 시정 방향을 좀더 빠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했으며 업무 보고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추진안 이충우 여주시장은 분기 및 반기별 확대하여 진행할 것과 이번 계획을 추진 토록한 조정아 여주부시장은 워크샵과 연계한 현장과 함께하는 업무보고 및

토론회를 추진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인구정책 주제로 열리는 4일차 주요역점 업무보고 및 토론회는 여주시 인구정책 TF팀이 전원 참여한 가운데 최대 50여명이 참여하여 여주시 농촌테마파크에서 열릴 계획이다.

김범상/기자



# 대구시, 워렌버핏 소유 IMC 그룹, 대구에 1300억 원 대규모 투자!



대구광역시 2월 7일 오전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IMC 그룹(사장 일란 게리)과 달성군 가장면 내 IMC엔드밀(유) 반도체 소재 제조시설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IMC 그룹은 2008년 대구텍(1,000억 원), 2018년 IMC엔드밀 1차 투자(675억 원)에 이어 세 번째 투자를 단행하며, 버크셔 해서웨이(회장 워렌버핏)의 대구 누적 투자액은 2,975억 원을 기록하게 됐다.

IMC 그룹은 세계적인 가치투자자로 유명한 워렌버핏이 소유한 투자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금속가공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절삭공구를 생산하고 있다.

IMC엔드밀(유)은 이번 반도체 소재

대구텍 이어 세 번째 투자, 누적 투자액 총 2,975억 원

제조시설 신축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반도체 특수가스의 제조에 사용되는 텅스텐 분말을 제조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반도체용 특수가스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으로 수입대체 효과 및 국내 반도체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텅스텐 분말 제품은 세계 각국에서 전략 물자로 관리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비축 자원으로 지정해 비축·관리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의 핵심 소재인 텅스텐 분말제품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반도체 산업을 미래 50년을 이끌 5대 신산업으로 선정해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과 산업기반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 텔레칩스, 인피니테크놀로지스 등 차량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 분야 국내외 대표 설계기업을 유치했다.

특히, D-FAB 센서파운드리 구축, 반

도체 공동연구소 건립 등을 통해 시스템반도체에 특화된 생태계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 IMC엔드밀(유) 투자를 통해 지역에 반도체 핵심소재 제조기반을 확보해 대구의 반도체 생태계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란 게리 IMC 그룹 사장은 “이번 투자를 통해 반도체 소재 공급의 세계적인 선도업체로 도약하고 다양한 산업에 텅스텐 소재를 보급함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텍과 IMC엔드밀은 워렌버핏과 IMC 그룹의 과감한 투자로 대구와 함께 성장해 온 대구의 대표적인 외투기기업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번 투자를 통해 대구 반도체 생태계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길 기대하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 소재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순천시, 생활인구 확보를 위한 워케이션 사업 준비 박차

순천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차별화된 정원 콘텐츠와 순천만의 다양한 생태 자원을 연계한 워케이션 운영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의 워케이션 사업은 지난해 선정된 행정안전부 '고향올래'공모사업 일환으로 거점시설 구축과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2023정원박람회 당시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가든스테이 실랑계'시설과 인근 예코촌을 연계하여 다양한 숙박 공간 및 업무 물임도에 따라 차별화된 사무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3월 완공을 목표로 워케이션 센터 리모델링 실시설계 중에 있다.

4월 오픈에 대비하여 입소문과 단골 고객 유치를 위해 수도권 기업과 투자

유치 기관,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팽투어를 실시하고 업무협약 등으로 단계 이용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지 무료입장이 가능한 순천매직패스와 웰컴키트 등 각종 혜택 및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정원 웰니스 프로그램, 순천만 철새 탐조와 같이 순천 특화 체험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회색도시의 분주함 속에서 심신이 지친 근로자들의 워라밸을 책임질 힐링 콘텐츠와 순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며, “워케이션 참여 예정인 기업과 근로자라면 차별화된 녹색도시 순천에서 일과 휴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준/기자





# 경북교육청, 세계로 향하는 글로벌 K-직업교육의 성과 공유

## 2023년 직업계고 글로벌 취업 평가회 개최

경북교육청은 구미시에 있는 호텔금오산에서 2023년 글로벌 취업 평가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평가회는 사업단별 파견 운영과 성과 보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향후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단과 학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문경공업고등학교 외 5개 학교 사업단, (주)뷰티그레아 이가자헤어비스 싱가포르 사업단의 학교장, 담당 교사, 파견교사와 기업체 관계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글로벌 취업은 연수와 파견 경비 일체를 교육청에서 지원하여 여학과 직무교육을 거친 후 해외 취업으로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2023년에는 4개국(독일, 미국, 싱가포르, 호주)에 63명이 파견되어 62명이 최종 국내 외 취업으로 전환됐다.

한편, 2023년 참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생의 90% 이상이 글로벌 역량과 해외 취업 의지 강화됐다고 응답했으며, 93%의 학생이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또, 학부모의 98%는 자녀의 국내 외 취업에 도움이 됐으며, 96.4%가 프로그램에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등 글로벌 취업에 대한 만족도와 지지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임중식 교육감은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기르고 꿈을 세계로 펼칠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경북 직업계고 학생들이 세계로 나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여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영양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 및 돌봄프로그램 강사 채용 지원

## 별천지 꿈천지 행복한 방과후학교 지원

영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2024년 2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에 걸쳐 2024학년도 3월부터 시작하는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및 돌봄 프로그램 외부 강사 채용 면접을 실시했다.

영양교육지원청은 학생중심의 미래 교육을 실현하고자 지역사회 연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방과후학교를 목표로 로봇교실, 요리교실, 중국어, 보드게임 등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김유희 교육장은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철저히 반영하여 다른 지역보다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학교지원센터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영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이번 지원 외에도 2024학년도 초·중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을 상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 부산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함께하는 ‘청렴한 출근길’

## 청렴 의미 나누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마련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은 8일 출근 시간 ‘교육장과 함께하는 청렴한 출근길’ 행사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쌀쌀한 출근길 청렴 온기를 함께 나누며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 이수금 교육장과 국장들은 출근하는 직원들을 반갑게 맞으며 군고구마, 호빵 등 청렴 간식을 나눠준다. 직원들은 간식을 함께 먹고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직원들은 6개 청렴 덕목이 적힌 종이를 뽑고, 해당 덕목으로 제작된 POP를 받는다. 이를 ‘2024년 나의 청렴 실천 키워드’로 정하고 올해 실천에 나선다.

이수금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은 “이번 행사는 직원들과 함께 일상 속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고, 유익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동래 교육

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도 전한다”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 경북교육청, 2024년 학교급식 분야 청렴도 향상 계획수립 및 시행

## 학교급식 청렴도 제고를 위해 수요자와 공급자 간 소통 강화

경북교육청은 학교급식 분야 청렴도 제고를 위해 지난해 청렴도 측정 결과와 청렴 만족도 조사 등을 분석하여 ‘2024년 학교급식 분야 청렴도 향상 계획’을 수립해 교육지원청과 각급학교에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학교급식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각급학교와 납품업체에 청렴 서한문 발송 △학교급식 청렴도

향상 직무연수 △ 식재료 납품업체와의 소통의 장 마련 △식재료와 우유 구매 계약 관련 상시 상담창구 운영으로 금품·향음 수수 등의 부패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각급학교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청렴 서한문을 발송하고, 식재료 납품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수요

자와 공급자 간 소통 강화에 중점을 뒀다.

민병도 체육건강과장은 “학교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시행하고, 식재료 납품업체와 소통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급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부산교육청과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 방안 찾는다

## 청렴도 향상 성과 공유하고 반부패 정책현안 등 논의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시도교육청 최우수기관인 부산시교육청과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 방안과 반부패 정책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8일 오전 10시 시도교육청 별관 전략회의실에서 하윤수 교육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교육청-국민권익위원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하 교육감 취임 후 두 번째 열리는 것이다. 지난 2022

년 열린 첫 간담회를 통해 양 기관은 부산교육청 채용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전국 행정기관의 공정한 채용시스템 확립에 기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 기관은 ▲2023년 부산교육청 종합청렴도 향상 우수사례 및 개선 사항 ▲부산교육청에서 요구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방법개선’, ‘공공건축 설계 심사 공정성 확보’ 등 제도개선 추진 현황 ▲위탁형 교육기관 공공 재정 부정수급 환수 사례 등을 논의·공유할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전국 시도교육청의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청렴도 최우수기관이란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시도교육청 부문 1위를 달성했다. 특히, 민원인과 내부 직원들이 평가하는 ‘청렴체감도’ 영역에

서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 유일하게 1등급을 획득했다.

윤근수/기자



# 꼭지 하나 달렸을 뿐인데... 청송사과 더욱 신선합니다

11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청송사과는 올해부터 꼭지를 치지 않습니다. 꼭지 달린 사과는 더욱 신선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꼭지를 치지 않으면 일손이 크게 절감돼 전국적으로 연간 660억원의 인건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그날까지 청송사과는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대한민국 사과의 표준, ‘명품’ 청송사과.



# 서초구, 2023년분 항공사진 판독결과 현장조사 실시

### 구, 위반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위반건축물 현장 조사 실시



서울 서초구는 위반건축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오는 6월 말까지 위반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서울시에서 지난해(2023년)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에 따라 전년 대비 변화가 생긴 건축물로, 총 5,842건이다. 이 중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

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위반 유형은 ▲옥상, 창고, 베란다 공간의 무단 증축 ▲대지 내 컨테이너 무단 축조 ▲패널, 비닐 등을 이용한 영업장 무단 확장 등이다.

구는 오는 6월 말까지 약 5달간의 현장 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원상 복구토록 시정명령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후, 시정명

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 등재,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주 고발 등 행정조치를 통해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위반건축물 관련해 공무원들을 사칭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조사원의 공무원증을 반드시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규모 증축이나 공작물 설치의 경우, 사전에 구청 건축과로 적법한 절차를 문의해 신분상·재산상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는 홍보활동 강화, 불법건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등을 통해 합법적인 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불법건축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해 올바른 건축문화를 확립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홍수/기자

# 금천구, 우울감, 스트레스... 예술치료로 마음을 치유하세요

### 집단상담 및 예술치료 통해 스트레스 및 우울감 해소



금천구는 스트레스, 우울감이 있는 지역주민 대상으로 집단상담과 예술치료를 접목한 ‘마음 한 조각 띄우기’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한다.

‘마음 한 조각 띄우기’는 2월 한 달간 심리상담 마음‘심’(시흥대로 449, 새우병원 별관 2층)에서 15명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한다.

프로그램 내용은 ▲ ‘긍정심리학’, 무

드름 만들기 ▲ ‘감정, 너의 이름은’, 미스트 만들기 ▲ ‘관계 속의 나’, 미니어처 아트 만들기 ▲ ‘삶의 의미’, 신데렐라 유리구두 꾸미기로 구성됐다.

1주 차에는 긍정심리학의 행복관과 특성, 긍정 몰입과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후 무드등을 만들어 부정적 감정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는다. 2주 차에는 감정의 중요성과 특성을 배운 후 감정 카드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참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원하는 향을 넣은 미스트 만들기를 진행한다.

3주 차에는 관계 속에서 경험한 갈등과 해결하지 못한 마음속 과제들을 찾아 본다. 또한 자신만의 작은 아지트를 꾸며본다. 4주 차에는 소중한 삶의 의미와

동기를 생각해 본다. 여성은 유리구두 꾸미기를, 남성은 가방 꾸미기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사후 우울증 척도 검사를 실시해 상담의 효과성을 분석한다.

구는 4월, 6월, 8월에도 집단 심리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전문적인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풀고, 아픔을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준다”라며,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집단상담과 예술치료를 받으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얻어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 영등포에 살면 '안심' 해요...영등포구, 여성 안전 더 밝아진다

영등포구가 여성 안심사업을 강화하여 여성 1인 가구가 살기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여성,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구는 지난달 30일, 유관기관간 협력체와 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구축하고자 영등포경찰서, 구민참여단과 ‘여성 안전 실무협의체(T/F)’ 회의를 진행했다. 여성 안전 강화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민·관·경 각각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공유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동 안전 보장 방안’을 중심으로 2024년 안심귀갓길 신규 노선 선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우선 관제구역 지정 등을 위한 향후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구는 올해 안심지

킴이집 4개소 추가, 안심귀갓길 노선 2개 신설, 화장실 불법촬영 탐지기 대량설치 확대 등 여성 안심사업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여성 대상 범죄 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손에 잡히는 안전한 영등포’ 안내문을 제작하여 경찰서, 지구대, 동 주민센터 등에 배치할 예정이다. 안내문 안에는 ▲불법 촬영 탐지기 무료 대여 ▲안심귀가 스카우트 ▲안심택배함 위치 ▲스마트 보안등 ▲귀가 모니터링 ▲안심장비(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경보기, 스마트 도어 센서) 지원사업 등이 담겨 있다.

향후 구는 ‘여성 안전 실무협의체(T/F)’와 함께 ▲여성 이동 안전 보장 ▲안전공간 조성 ▲여성 안전 대응 및 활동 역량 강화 ▲여성 안전 네트워크 구축 ▲폭력 없는 안전마을 만들기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협업 사업을 지속적으

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다양한 여성 안심사업을 통해 혼자 거주하거나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이 생활 속 불안과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실질적인 범죄 예방은 물론 구민 생활 속 안전을 지키는 정책들을 지속 발굴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영등포구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 서대문구, 지역사회 교육안전망 구축 '교육지킴이' 확대 운영

### 기존 42명에서 140명으로 증원, 4개 권역별 분과회의 도입

서대문구는 지난해 8월 14개 동마다 3명씩 총 42명으로 출범한 ‘서대문 동 단위 교육지킴이’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서대문 교육지킴이(edu-keeper)는 반상회를 통한 지역 교육 발전 아이디어 제안, 교육 캠페인과 봉사활동 참여, 교육 사각지대 발굴 등 다양한 사회공헌을 하는 서대문구만의 특별한 활동이다.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반장들로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서대문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교육지킴이들은 작년 발대식을 시작으로 교육 반상회(3회), 역량강화 교육(2회), 교육 사회공헌활동(1회) 등에 참여해 왔다.

올해는 동별 10명씩 총 140명으로 교육지킴이가 확대된다. 또한 전체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던 지난해와 달리 먼

저 4개 권역별 분과회의를 통해 각 지역의 교육 의제를 논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공유한다. 이를 통해 더욱 촘촘한 지역사회 교육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구는 최근 구청 대강당에서 ‘2024 서대문 동 단위 교육지킴이 위촉식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지킴이와 각 동 실무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서대문 미래교육 정책을 공유하고 서대문 교육지킴이로서 성실히 활동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성현 구청장은 “서대문 동 단위 교육지킴이 사업의 단계적 성장을 위해 교육지킴이를 추가 위촉하고 활동 범위를 확대한다”며 “올해 더욱 다양한 교육 사회공헌활동과 광범위한 지역사회 교육 네트워크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성북구, 10억 규모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

### 공동체 활성화, 어르신 보안관, 열린 아파트, 관리지원 사업 등 4개 분야

서울 성북구가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시기는 2월 19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대상은 관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공동주택 내 공동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단지 내의 인적·공간적 자원을 활용해 열린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진행한다.

▲공동체 활성화(주민 소통, 취미·건강교실 등), ▲어르신 보안관(단지 내 순찰 활동), ▲열린 아파트(공간 개선, 개방을 통한 단지 내 공동체 활동), ▲

관리지원 사업(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등) 4개 분야별로 공모를 진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 의결을 거친 후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성북구청 주택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 선정은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 후, 성북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공모에 총 1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고 선정 공동주택에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최대 8백만 원, 어르신 보안관 사업 최대 2백만 원, 열린 아파트 사업 최대 2천만 원, 관리지원

사업 최대 1천5백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구는 2011년부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어르신 보안관, 열린 아파트 사업으로 총 140개 단지를, 관리지원 사업으로 68개 단지 지원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공동주택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만큼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 서울 중구, 설연휴 대비 건축 공사장 안전점검

### 중소형 건축공사장 총 57곳 대상 민관 합동 점검

서울 중구가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느껴지기 쉬운 안전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공사장 안전 점검에 나섰다.

구는 지난 2월 2일까지 해체 현장 5곳, 10,000㎡ 이상인 대형 건축공사장 10곳을 포함한 소규모 중소형 건축공사장 총 57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점검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 공사장 주변 환경정비 및 보행자 통행 지장 여부 ▲ 굴도공사장 내 흠막이 적정 시공 여부 ▲ 화재, 침수 등 안전사고 예방 관리 여부 ▲ 태풍·강풍 대비 타워크레인,

건설장비, 가설울타리, 낙하물 방지망 등 보강·유지관리 적정여부 ▲ 연휴 중 자체 비상 근무조 편성 현황 등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토록 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유인이 발견되면 긴급 보강·보수 작업을 진행해 철저한 안전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구는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 대금,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여부 등도 함께 파악한다.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현장을 발견하면 추석 이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강력히 독려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긴 설 연휴 기간 공사 현장에서는 작은 결함도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며 “철저한 사전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로 사전에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등 설명절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성원/기자

내 고향 살리고 혜택도 받는

# 의성사랑 기부제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와 지역 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

**쉬운 기부 지역사랑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답례품 구입

세액 공제, 답례품 제공

지역 특산품 생산

**10만원 기부 시 세액 공제 100%**  
**3만원 상당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 기부한도액 :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
- 세액 공제 : ~10만원(100%), 10만원 초과~500만원(16.5%)

**의성군**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을진



2024




#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2024.

2.22(목) ~ 25(일)

울진군 후포항 일원



| 주최 |  울진군 | 주관 |  울진군축제발전위원회  
| 후원 |  한수원주 | 한울원자력본부